

## 주해(註解) 〈덴동어미화전가〉

박혜숙\*

### 붙이는 말

<덴동어미화전가>는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인 『소백산대관록』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원래 제목은 <화전가라>로 되어있지만, 내용 중에 덴동어미라는 여성 인물의 개인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이름을 따서 ‘덴동어미화전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류탁일 교수에 의해 처음 학계에 알려졌고(『조선 후기 가사에 나타난 서민의 의향』, 『연민이가원박사육질송수기념논총』, 범학도서, 1977), 김문기 교수가 『서민가사연구』(형설출판사, 1983)에 원문을 활자화하여 수록하였으며,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 논문을 다수 제출한 바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그 현실 반영과 문학적 성취라는 점에서 가사가 도달한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이다. 하지만 텍스트 전체에 대한 자세하고도 온전한 주해 작업은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 『고전시가선』(임형택·고미숙 편, 창작과비평사, 1997)에서 원문의 많은 부분을 현대어 표기로 옮기고 주석을 달아서 수록해 두었는데,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는 주석이다. 그러나 원문 전체에 대한 주석이 아니고 부분 부분 생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석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외에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에도 이 작품의 주석이 있다.)

특히 이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는 ‘봄춘자 노래’, ‘꽃화자 노래’는 분량으로 보나, 작품 내에서의 의미 및 기능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주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기존의 연구에서도 <텐동어미화전가>의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텐동어미화전가>의 원문은 행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2음보를 1행으로 삼았고, 두 행씩 짝을 지어 표기하였다. 모두 1620행이며, 면수로는 45면에 달하는 장편이다. 표기상의 주요 특징을 보면, 중세 국어의 · 표기를 사용하였고, 된소리 ㅅ 표기를 사용하였으며, 경상도 방언의 특성에 따라 ㄱ/ㅈ, ㄱ/ㅋ, ㅌ/ㅍ, ㅡ/ㅣ 를 혼용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자어 및 한시구(漢詩句)가 대거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한글 표기에 상당한 와오(訛誤)가 있다. 과거의 텍스트에 주해를 붙일 경우, 가급적 원문 그대로를 제시한 다음, 거기에다 주석을 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텐동어미화전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표기상의 특징들 때문에, 현대어 맞춤법과 다른 표기 형태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려면, 주해가 지나치게 번다해지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주해에서는 원 텍스트의 표기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원문을 현대 표기로 바꾸고, 거기에다 가급적 자세하게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가사의 율격적 관습 및 표기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문의 2행을 1행으로 표기하였다. 『서민가사연구』에 활자화되어 있는 원문을 일정하게 참조하였고, 그 오독된 부분은 바로잡았다.

<텐동어미화전가>는 문학 텍스트로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방언과 여성생활사에 관한 자료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경상북도 방언에 매우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본 주석자의 경험이 이 작품의 주석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 원문 및 주해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침 삼월이라  
 동군이 포덕택하니<sup>1)</sup> 춘화일난<sup>2)</sup> 때가 맞고  
 화신평<sup>3)</sup>이 화공<sup>4)</sup>되어 만화방창 단청 되네.<sup>5)</sup>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음 하여보세.  
 불출문외<sup>6)</sup> 하다가서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sup>7)</sup>있게 놀아보세.  
 어떤 부인은 마음이 커서 가루<sup>8)</sup> 한 말 퍼 내놓고  
 어떤 부인은 마음이 적어 가루 반 되 떠 내주고  
 그렇저렇 주어 모으니 가루가 닳 말 가웃<sup>9)</sup>일래.  
 어떤 부인은 참기름 내고 어떤 부인은 들기름 내고  
 어떤 부인은 많이 내고 어떤 부인은 적게 내니  
 그렇저렇 주어 모으니 기름 반 동이 실하구나.  
 낫소리<sup>10)</sup>가 두세 채라 짐꾼 없어 어이할고,  
 상단아 널랑 기름 여라<sup>11)</sup> 삼월이 불러 가루 여라  
 취단일랑 가루 이고 향단이는 낫소리 여라

- 
- 1) 동군이 포덕택하니: 東君이 布德澤하니. 동군이 덕택을 베풀어주니. ‘동군’은 태양의 신. 혹은 봄을 맡은 동쪽의 신. 靑帝라고도 함.  
 2) 춘화일난: 春和日暖. 봄이 화창하고 날씨가 따뜻함.  
 3) 화신평: 花信風. 꽃 피는 때에 맞춰 부는 바람. 24번의 화신평이 있다고 함. 소한에서 곡우에 이르는 4달, 8월기, 120일 중 매 5일을 단위로 한 종류의 화신평이 분다고도 하고, 혹은 매달 2번의 화신평이 있어 일 년에 24번의 화신평이 있다고도 함.  
 4) 화공: 畫工. 화가.  
 5) 만화방창 단청 되네: 萬化方暢 丹青 되네. 봄이 되어 만물이 한창 자라나 울긋불긋 그림 같다.  
 6) 불출문외: 不出門外. 문밖을 나가지 않음.  
 7) 흥취: 興취(興趣).  
 8) 가루: 화전 부치는 데 쓸 찹쌀가루.  
 9) 가웃: 가웃. 되·말·자의 수를 셀 때 그 단위의 약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10) 낫소리: 낫으로 된 소리기. ‘소리기’는 굽 없는 널찍한 그릇. 독 뚜껑이나 그릇으로 쓰임.  
 11) 여라: (머리에) 이어라.

열여섯 열일곱 신부여<sup>12)</sup>는 갖은 단장 옹계 한다.  
 청홍사 감아들고 눈썹을 지워내니<sup>13)</sup>  
 세붓<sup>14)</sup>으로 그린 듯이 아미팔자<sup>15)</sup> 어여쁘다.  
 양색단<sup>16)</sup> 겹저고리 길상사<sup>17)</sup> 고장바지<sup>18)</sup>  
 잔줄누이<sup>19)</sup> 겹 허리띠 맵시 있게 잘끈 매고  
 광월사<sup>20)</sup> 치마에 분홍단기<sup>21)</sup> 툭툭 털어 둘러 입고  
 머리고개 곱게 빗어 잣기름 발라 손질하고  
 공단<sup>22)</sup>댕기 갑사<sup>23)</sup>댕기 수부귀다남자<sup>24)</sup> 딱딱 박아  
 청준주 홍준주<sup>25)</sup> 곱게 붙여 착착 접어 곱게 매고  
 금죽절 은죽절 좋은 비녀<sup>26)</sup> 뒷머리에 살짝 꽂고  
 은장도 금장도 갖은 장도 속고름에 단단이 차고  
 은조롱 금조롱 갖은 패물 곁고름에 빗겨 차고  
 일광단 월광단<sup>27)</sup> 머리보<sup>28)</sup>는 섬섬옥수 감아들고  
 삼승버선<sup>29)</sup> 수당혜<sup>30)</sup>를 날출자<sup>31)</sup>로 신었구나.

12) 신부여: 新婦女. 새 신부.

13) 지워내니: 여기서 '지우다'는 없던 것을 생기게 하다는 뜻.

14) 세붓: 가는 붓.

15) 아미팔자: 蛾眉八字. 아름다운 눈썹.

16) 양색단: 씨실과 날실을 다른 빛깔로 짠 비단.

17) 길상사: 吉祥紗. 중국에서 나는 생견(生絹)으로 짠 옷감의 하나.

18) 고장바지: 고쟁이. 가랑이 통이 넓은 여자 속옷.

19) 잔줄누이: 잔줄누비. 아주 잘게 누빈 것을 말함.

20) 광월사: 옷감의 한 종류.

21) 단기: 옷의 밑단.

22) 공단: 두껍고 무늬가 없는 비단.

23) 갑사: 甲紗. 품질이 좋은 사(紗).

24) 수부귀다남자: 壽富貴多男字. '수' '부귀' '다남'이라는 글자.

25) 청준주 홍준주: 푸른 구슬 붉은 구슬. '준주'는 구슬이나 단추.

26) 금죽절 은죽절 좋은 비녀: 대마디 모양의 금비녀, 은비녀. '죽절'은 대의 마디 모양으로 생긴 것을 말함.

27) 일광단 월광단: '일광단'은 해 무늬를 놓은 비단, '월광단'은 달무늬를 놓은 비단.

28) 머리보: 옛 여성들이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 머리치네. 머리쓰개.

29) 삼승버선: 삼승포로 만든 버선. 삼승포를 흔히 '석새베', 혹은 '석새삼베'라고 한다. 하지만 석새베는 엮하는 데나 모기장 따위에 쓰이는 아주 성근 베로서 버선을 만들 수는 없다. 여기서 '삼승포'는 석새베가 아니라 몽고산의 고운 무명천. 경기 잡가 <방물가>에도 "속버선에 몽고 삼승, 곁버선에 자지 상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30) 수당혜: 繡唐鞋. 신의 율이 수놓은 비단으로 된 당혜. '당혜'는 가족신의 하나. 율이 깊고 코

반만 웃고 썩 나서니 일행 중에 제일일세.  
 광한전<sup>32</sup> 선녀가 강림했나 월궁항아<sup>33</sup>가 하강했나.  
 있는 부인은 그렇거니와 없는 부인은 그대로하지.  
 양대포<sup>34</sup> 겹저고리 수품<sup>35</sup>만 있게 지어 입고  
 칠승포<sup>36</sup>에다 갈마물<sup>37</sup> 들여 일곱 폭 치마 펼쳐입고  
 칠승포 삼베 허리띠를 제모<sup>38</sup>만 있게 둘러 띠고  
 굵은 무명 겹버선을 쓸쓸하게<sup>39</sup> 빨아 신고  
 돈 반짜리<sup>40</sup> 짚세기<sup>41</sup>라 그도 또한 탈속하다.<sup>42</sup>  
 열일곱살 청춘과녀<sup>43</sup> 나도 같이 놀러가지.  
 나도 인물 좋건마는 단장할 마음 전혀 없어  
 때나 없이 세수하고 거친 머리 대강 만져  
 늦비녀를 슬쩍 꽃아 눈썹 지워 무엇하리.  
 광당목<sup>44</sup> 반물<sup>45</sup>치마 끝동<sup>46</sup>없는 흰 저고리  
 흰 고름을 달아 입고 전에 입던 고장바지

가 작으며 앞코와 뒤에 당초문을 새겼음.

- 31) 날출자: 날 出字. 신을 신은 발모습이 출자 같다는 뜻.  
 32) 광한전: 廣寒殿. 달 속에 있다는 가상의 궁전.  
 33) 월궁항아: 月宮姮娥. 달 속의 선녀.  
 34) 양대포: 양달령. 당목과 비슷하나 두겹고 질김.  
 35) 수품: 솜씨.  
 36) 칠승포: 칠승포는 사승포(넉새베), 오승포(닷새베), 육승포(엷새베)보다 더 곱이 고운 무명이다. 『영조실록』에 사승포를 1냥, 오승포는 2냥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칠승포는 훨씬 더 비쌌음을 알 수 있다. 잡가 <베틀가>에 “초산 벽동 칠승포요, 회천 강계 육승포라”는 구절이 있다.  
 37) 갈마물: 갈매물. 검은 빛이 도는 짙은 초록빛 염색. 갈매나무 열매로 들인 물.  
 38) 제모: 체모(體貌). 모양이나 갖추세.  
 39) 쓸쓸하게: 어지간하여 괜찮게.  
 40) 돈 반짜리: 한 돈 닷 쪼짜리. 돈을 세는 최하 단위가 쪼이고, 열 쪼이 모여 한 돈을 이룬. 돈을 전이라고도 함. 열 돈이 한 냥임.  
 41) 짚세기: 짚신.  
 42) 탈속하다: 脫俗하다. 탈속한 듯한 멋이 있다는 뜻.  
 43) 청춘과녀: 청춘과부.  
 44) 광당목: 광목과 당목. ‘당목(唐木)’은 두 가닥 이상의 가는 실을 한 가닥으로 꼰 무명실로 폭이 넓고 바닥을 곱게 짠 천. ‘생목’이라고도 함. ‘광목(廣木)’도 당목처럼 폭이 넓게 짠 무명천.  
 45) 반물: 검은 빛을 띤 남빛.  
 46) 끝동: 옷소매의 끝에 색이 다른 천으로 이어서 댄 동.

대강대강 수습하니 어린무던<sup>47)</sup> 관기차네.<sup>48)</sup>  
 건너 집의 텐둥어미 옛 한 고리 이고 가서  
 가지 가지 가고말고 낸들 어찌 안 가랏가.  
 늙은 부녀 젊은 부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자행차<sup>49)</sup> 장관이라.  
 순흥<sup>50)</sup>이라 비봉산<sup>51)</sup>은 이름 좋고 놀이 좋아  
 골골마다 꽃빛이요 등등마다 꽃이로세.  
 호산나부 병나부<sup>52)</sup>야 우리와 같이 화전하나  
 두 나래를 툭툭 치며 꽃송이마다 종구하네.<sup>53)</sup>  
 사람 간 곳에 나비 가고 나비 간 곳에 사람 가니  
 이리 가나 저리로 가나 간 곳마다 동행하네.  
 꽃아 꽃아 두견화꽃<sup>54)</sup>아 네가 진실로 참꽃<sup>55)</sup>이다  
 산으로 일러 두견산은 귀촉도 귀촉도 관중이오<sup>56)</sup>  
 새로 일러 두견새는 불여귀 불여귀 산중이오<sup>57)</sup>  
 꽃으로 일러 두견화는 불긋불긋 만산이라  
 곱고 곱다 참꽃이오 사랑하다 참꽃이오  
 탕탕하다 참꽃이오 색색하다 참꽃이라  
 치마 앞에도 따 담으며 바구니에도 따 담으니

47) 어린무던: 어린무던하다. 별로 흠이 없고 무던하다.

48) 관기차네: 관계치 않네. 별 상관이 없네.

49) 일자행차: 一字行次. 한 줄로 가는 모습.

50) 순흥: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51) 비봉산: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산.

52) 호산나부 병나부: '호랑나비' '범나비'를 가리키는 듯.

53) 종구하네: 從求하네. 따라가며 찾아드네.

54) 두견화꽃: 진달래꽃.

55) 참꽃: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먹는 꽃이므로 '참꽃'이라 하고 철쭉꽃은 먹을 수 없는 꽃이므로 '개꽃'이라 하였다.

56) 귀촉도 귀촉도 관중이오: 歸蜀道 歸蜀道 關中이오. '귀촉도'란 '촉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관중'은 지금의 중국 섬서성 지방을 가리킴.

57) 불여귀 불여귀 산중이오: 不如歸 不如歸 山中이오. '불여귀'란 '돌아감만 못하다'는 뜻인데,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가리킨다. 촉나라 망제(皇帝)는 왕위를 신하에게 빼앗기고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복위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그 혼이 소쩍새가 되었다는데, 그 울음소리가 '불여귀' 또는 '귀촉도'로 들렸다고 한다.

한 줌 따고 두 줌 따니 춘광이 건입채롱중<sup>58)</sup>을  
 그 중의 상송이<sup>59)</sup> 똑똑 꺾어 양쪽 손에 갈라 쥐고  
 잡아 뜯을 맘이 전혀 없어 향기롭고 이상하다.  
 손으로 답삭 쥐어도 보고 몸에도 툭툭 털어보고  
 낮에다 살짝 문대보고 입으로 함박 물어보고  
 저기 저 새택 이리 오게 고예<sup>60)</sup> 고예 꽃도 고예.  
 오리불실<sup>61)</sup> 고은 빛은 자네 얼굴 비슷하이.  
 방실방실 웃는 모양 자네 모양 방불하이.  
 앵고부장<sup>62)</sup> 속 수염<sup>63)</sup>은 자네 눈썹 똑 같으네.  
 아무래도 딸 맘 없어 뒷머리 살짝 꽃아놓니  
 앞으로 보아도 화용이오 뒤으로 보아도 꽃이로다.  
 상단이는 꽃 데치고 삼월이는 가루집<sup>64)</sup> 풀고  
 취단이는 불을 너라 향단이가 떡 굽는다.  
 청계반석<sup>65)</sup> 너른 곳에 노소를 갈라 좌<sup>66)</sup> 차리고  
 꽃떡을 일변 드리나마 노인부텨 먼저 드리어라.  
 옛과 떡과 함께 먹으니 향기의 감미가 더욱 좋다.  
 함포고복<sup>67)</sup>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이  
 일 년 일차 화진 놀음 여자 놀음 제일일세  
 노고지리 쉼 질<sup>68)</sup> 떠서 빌빌 뽁뽁 피리 불고  
 오고가는 벽궁새<sup>69)</sup>는 벽궁벽궁 벽구<sup>70)</sup>치고

58) 춘광이 건입채롱중:春光이 近入彩籠中, 봄빛이 채롱 가까이 들어온다.

59) 상송이: 좋은 꽃송이.

60) 고예: 고와라.

61) 오리불실: 방언의 ‘도리불실’인 듯. ‘도리불실’은 ‘도리불수(桃梨佛手)’로서, 비단의 한 종류임. 비단처럼 곱다는 뜻.

62) 앵고부장: 앵고부장(仰高俯長). (꽃술이) 위를 향해 솟은 것은 높다랗고, 아래로 늘어진 것은 기다랗다는 뜻. 경상도 방언에서 ‘ㅏ’ 모음이 ‘ㅕ’ 모음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음.

63) 속 수염: 꽃의 암술과 수술.

64) 가루집: 가루즙. 가루를 물에 갠 것.

65) 청계반석: 淸溪盤石. 맑은 시냇가 너른 바위.

66) 좌: 座. 자리.

67) 함포고복: 含哺鼓腹.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김.

68) 쉼 질: 쉼 길. 오십 길. 여기서서는 아주 높은 곳을 가리킴.

봄빛 자는<sup>71)</sup> 피고리는 좋은 노래로 벗 부르고  
 호랑나부 범나부는 머리 위에 춤을 추고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고 치하하고  
 천년화표 학두루미<sup>72)</sup> 요지연<sup>73)</sup>인가 의심하네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칙편<sup>74)</sup>을 외워 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편<sup>75)</sup>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sup>76)</sup>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 중에도 텐둥어미 벗어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 중에도 청춘과녀 눈물콧물 귀취하다.<sup>77)</sup>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삼<sup>78)</sup> 왜일이오?  
 나건<sup>79)</sup>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 보소.  
 열네 살에 시집을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sup>80)</sup> 맹세하고 백년이나 사쨌더니  
 겨우 삼년 동거하고 영결종천<sup>81)</sup>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오 나는 겨우 십칠이라.

69) 벽궁새: 뼈꾸기.

70) 벽구: 방언으로 '버꾸'라고도 한다. 남사당패에 '버꾸잡이'가 있는데, 이는 '법고'를 가리킨다. '법고'는 농악에 쓰이는 소북.

71) 자는: 재는. 뽑내는.

72) 천년화표 학두루미: 千年華表 학두루미. 천 년 만에 돌아온 화표 위의 학두루미. '화표'는 궁전이나 성벽·능묘 앞에 장식을 겸하여 세운 거대한 기둥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나라 요동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는데 나중에 학이 되어 성문 화표주 위에 날아왔다고 한다.

73) 요지연: 瑤池淵. 중국 곤륜산에 있다고 하는 못.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난 곳으로 유명함.

74) 내칙편: 內則篇. 『예기』의 편명. 여성들이 지켜야 할 유교적 규범을 기록한 글.

75) 칠월편: 七月篇. 『시경』의 시.

76) 목성: 목청.

77) 귀취하다: 구지지하다. 구지레하다.

78) 낙루한삼: 낙루한습.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쉰.

79) 나건: 羅巾. 비단수건.

80) 원불상리: 願不相離. 서로 헤어지지 않기를 원함.

81) 영결종천: 永訣終天.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선풍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불고.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십육 세 요사<sup>82)</sup> 임뿐이오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던<sup>83)</sup> 우리 낭군 지나께나 잇을손가.  
 잠이나 자로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꺾야 입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님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sup>84)</sup>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sup>85)</sup>를 채 못하여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입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 경경<sup>86)</sup> 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하되 날과 백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려고.  
 정정한<sup>87)</sup>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든<sup>88)</sup>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하기 심회를 조금 풀까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촉처감창<sup>89)</sup> 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오 듣나니 족족 한심<sup>90)</sup>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sup>91)</sup> 꽃 핀걸 보아도 비창하네

82) 요사: 夭死 요절.

83) 탐탐하던: 탐탐하다. 마음에 들어 즐겁고 좋다.

84) 만단정담: 萬端情談. 온갖 정다운 이야기.

85) 일장설화: 一場說話. 한바탕의 이야기.

86) 경경: 耿耿 (불빛이) 깜박깜박하는 것.

87) 정정한: 耿耿(耿耿)한. 마음에 잊히지 않는.

88) 재든: 재다. 바재다. 바장이다. (마음이 편치 못하여)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닐다.

89) 촉처감창: 觸處感愴. (눈, 귀, 마음 등에) 닿는 것마다 슬프다.

90) 한심: 한숨.

91) 회심하고: 灰心하고. 마음이 재와 같고.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하니 말 아니오 아니 가고는 어찌할고.  
 텨둥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sup>92)</sup> 가지 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량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도망<sup>93)</sup>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읍내 그 중 큰 집에  
 처행<sup>94)</sup>차려 들어가니 장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간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구고님<sup>95)</sup>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되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 마침 단오러라.  
 삼백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추천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sup>96)</sup>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신정<sup>97)</sup>이 미흡한데 십칠세에 과부됐네.  
 호천통곡<sup>98)</sup> 슬피 운들 죽은 낭군 살아올까.  
 한숨 모아 대풍 되고 눈물 모아 강수 된다.  
 주야 없이 하 슬피 우니 보는 이마다 눈물내네.  
 시부모님 하신 말씀 친정 가서 잘 있거라.

92) 제발 적선: 제발 덕분. 제발. 부디.

93) 신명도망: 자기의 신명, 즉 팔자로부터 도망을 침.

94) 처행: 길 떠날 행장을 차리는 것.

95) 구고님: 舅姑님. 시부모님.

96) 메박으니: 메쳐 박으니.

97) 신정: 新情. 새로 맺은 정. 신혼의 정.

98) 호천통곡: 呼天痛哭. 하늘을 부르며 울부짖음.

나는 아니 갈라하니 달래면서 개유<sup>99)</sup>하니  
 할 수 없어 허락하고 친정이라고 돌아오니  
 삼백장이나 높은 남기<sup>100)</sup> 날을 보고 느끼는 듯  
 떨어지던 곳 임의 녀이 날을 보고 우니는 듯.  
 너무 답답 못 살겠네 밤낮으로 통곡하니  
 양 곳<sup>101)</sup> 부모 의논하고 상주읍내 중매하니  
 이상찰<sup>102)</sup>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sup>103)</sup> 후취로 들어가니  
 가세도 웅장하고 시부모님도 자룩하고<sup>104)</sup>  
 낭군도 출중하고 인심도 거룩하되  
 매양 앓아 하는 말이 포<sup>105)</sup>가 많아 걱정하더니  
 해로삼년이 못 다 가서 성 쌓던 조등내<sup>106)</sup> 도입하고  
 엄형<sup>107)</sup> 중에 수금하고 수만 량 이포를 추어내니  
 남진북답 좋은 진지 추풍낙엽 떠나가고  
 안팎 줄행랑 큰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남의 집 되고  
 압다지 등<sup>108)</sup> 맞은 켜 뒤주며 큰 황소 적대마<sup>109)</sup> 서산나귀<sup>110)</sup>  
 대양푼 소양푼 세수대야 큰 술 적은 술 단밤가마<sup>111)</sup>  
 늦주걱 술국이<sup>112)</sup> 늦쟁반에 옥식기 늦주발 실굽다리<sup>113)</sup>

99) 개유: 開諭. 깨우쳐 타이름.

100) 남기: 나무.

101) 양 곳: 두 곳.

102) 상찰: 지방 관아의 아전의 한 부류인 듯.

103) 승발: 承發. 아전 밑에서 문서 수발 등의 잡무를 보던 사람.

104) 자룩하고: '자애롭다'는 정도의 뜻인 듯.

105) 포: 이포(吏逋). 아전이 공금을 사사로이 가져다 쓴 빚.

106) 등내: 等內.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여기서는 본관사또를 가리키는 말.

107) 엄형: 嚴刑. 엄한 형벌.

108) 압다지 등: 원문은 '압다지등'인지 '압다지등'인지 불확실하다. 일단 '압다지 등', 즉 '앞단이 등'으로 판독하기로 한다. '앞단'은 '반단'의 일종.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있는 켜. 뒷단이, 윗단이기도 있음.

109) 적대마: 적토마. 매우 빠르고 좋은 말. 원래는 중국의 항우가 타던 말의 이름.

110) 서산나귀: 西產나귀. 보통 당나귀보다 조금 더 큰, 중국산 나귀.

111) 단밤가마: 조그만 가마술. 지복술.

112) 술국이: 술구기. 독이나 항아리에서 술을 풀 때 쓰는 기구.

113) 실굽다리: 실굽달이. 실굽이 달려 있는 그릇. '실굽'이란 그릇의 밑바닥에 가늘게 돌려있는 받침.

개사다리<sup>114</sup>) 옷걸이며 대병풍 소병풍 산수병풍  
 자개함농 반단이<sup>115</sup>)에 무쇠두멍<sup>116</sup>) 아르쇠<sup>117</sup>) 받쳐  
 쌍룡 그린 빗집고비<sup>118</sup>) 걸쇠등경<sup>119</sup>) 늦등경에  
 백동재판<sup>120</sup>) 청동화로 요강 타구<sup>121</sup>) 재떨이까지  
 용도머리<sup>122</sup>) 장목비<sup>123</sup>) 아울러 아조 훨쩍 다 팔아도  
 수천 량 돈이 모자라서 일가친척에 일족하니<sup>124</sup>)  
 삼백 량 이백 량 일백 량에 하지하<sup>125</sup>)가 쉰 량이라.  
 어느 친척이 좋다하며 어느 일가가 좋다하리.  
 사오만 량을 출판<sup>126</sup>)하여 공채필납<sup>127</sup>)을 하고나니  
 시아버님은 장독<sup>128</sup>)이 나서 일곱 달 만에 상사 나고  
 시어머님이 애병<sup>129</sup>) 나서 초종<sup>130</sup>) 후에 또 상사 나니  
 건 이십 명 남노여비<sup>131</sup>) 시실새실 다 나가고  
 시동생 형제 외입가고<sup>132</sup>) 다만 우리 내외만 있어  
 남의 건너방 빌어 있어 세간살이 하자하니

114) 개사다리: 개상반. 개다리소반.

115) 반단이: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아래로 젖혀 여닫게 된 껍.

116) 두멍: 큰 가마. 독만큼 크게 된 둥이.

117) 아르쇠: '다리쇠'의 방언.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

118) 빗집고비: 빗이나 빗술, 동긋 등을 넣어두는 기구. 항상 경대와 함께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  
 며 자개 따위로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다.

119) 걸쇠등경: '걸쇠'는 병머리에 그리는 무늬의 일부. '등경'은 등잔.

120) 백동재판: 백동으로 만든 재판. '재판'은 방 안에 담배통, 재떨이, 타구, 요강 등을 놓기 위  
 해 깔아두는 판. 보통은 널빤지 또는 두꺼운 종이로 한다.

121) 타구: 침 빨는 그릇.

122) 용도머리: 용두머리. 원래 '용두머리'는 배틀 앞다리 위 끝에 엮는 나무를 가리킨다.

123) 장목비: 꿩의 꽂지깃을 묶어 만든 비. 혹은 수수의 일종인 장목수수의 이삭으로 맨 비.

124) 일족하니: 일족 물리니. '일족 물리다'는 일가붙이에게 족정을 내게 하는 것이다.

125) 하지하: 下之下. 최하.

126) 출판: 出判. 재산을 모두 탕진함.

127) 공채필납: 관가에 진 빚을 다 갚음.

128) 장독: 杖毒. 매를 심하게 맞아 생긴 상처의 독.

129) 애병: 화병.

130) 초종: 초상 난 뒤로부터 졸곡(卒哭)까지의 기간.

131) 남노여비: 男奴女婢. 남녀 노비.

132) 외입가고: 가출하고. 경북에서는 '외입간다', '오입간다'는 말을 가출, 도망 등의 뜻으로 여  
 전히 쓰고 있음.

콩이나 팥이나 양식 있나 질노구<sup>133)</sup> 바가지 그릇이 있나  
누구가 날 보고 돈 줄손가 하는 두수<sup>134)</sup> 다시없네.  
하루 이틀 굶고 보니 생목숨 죽기가 어려워라.  
이 집에 가 밥을 빌고 저 집에 가 장을 빌어  
증한 소혈<sup>135)</sup>도 없이 그리저리 지내가니  
일가친척은 나올까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  
두 번째는 눈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말을 하네.  
우리 덕에 살던 사람 그 친구를 찾아가니  
그리 여러 번 안 왔건만 안면박대 바로 하네.  
무슨 신세를 많이 저서 그저께 오고 또 오는가.  
우리 서방님 울적하여 이역스럽<sup>136)</sup>을 못 이겨서  
그 방안에 궁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네.  
서방님아 서방님아 울지 말고 우리 둘이 가다보세.  
이게 다 없는 탓이로다 어디로 가든지 벌어보세.  
전전결식 가노라니 경주읍내 당도하여  
주인 불러 찾아드니 손군노<sup>137)</sup>의 집이로다.  
둘러보니 큰 여각<sup>138)</sup>에 남래북거<sup>139)</sup> 분주하다.  
부엌으로 들이 달아 설것이를 걸신하니<sup>140)</sup>  
모은 밥을 많이 준다 양주<sup>141)</sup> 앉아 실컷 먹고  
아궁<sup>142)</sup>에나 자려하니 주인마누라 후하기로  
아궁에 어찌 자려는가 방에 들어와 자고 가게.

133) 질노구: 흙을 구워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원래 늦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을 가리킴.  
자유로이 옮겨가며 따로 걸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술.

134) 두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방도. ‘두수없다’는 말은 달리 주선하거나 변통  
할 여지가 없다는 뜻.

135) 증한 소혈: 定한 巢穴. 정해진 변변찮은 거처.

136) 이역스럽: 속에서 뻘치는 울화.

137) 군노: 군뢰(軍牢). 군아(軍衙)에 딸린 종.

138) 여각: 旅閣. 객숙집.

139) 남래북거: 南來北去. 남쪽에서 오고 북쪽으로 감. 사람들이 왔다가는 떠남.

140) 걸신하니: 걸썬하다. 어떤 일을 조금 하다.

141) 양주: 두 부부.

142) 아궁: 아궁이. 아궁이 앞.

중노미<sup>143</sup>) 불러 당부하되 아까 그 사람 불러들여  
 봉눗방<sup>144</sup>) 재우라 당부하네 재삼 절하고 치사하니  
 주인마누라 긍측<sup>145</sup>)하여 곁에 앉히고 하는 말이  
 그대 양주를 아무리 봐도 걸식할 사람 아니로세.  
 본디 어느 곳 살았으며 어찌하여 저리 됐나?  
 우리는 본디 살기는 청주읍내<sup>146</sup>) 살다가서  
 신명팔자 괴이하고 가화<sup>147</sup>)가 공참<sup>148</sup>)하여  
 다만 두 몸이 살아나서 이렇게 개걸하나이다.  
 사람을 보아도 순직하니 안팎 답살이<sup>149</sup>) 있어주면  
 밧사람<sup>150</sup>)은 일백오십 량 주고 자네 사전<sup>151</sup>)은 백 량 줌세.  
 내외 사전을 합하고 보면 이백쉴 량 아니 되나.  
 신명은 조금 고되나마 의식이야 걱정인가.  
 내 맘대로 어찌 하오리까 가장과 의논하사이다.  
 이내 봉눗방 나가서로 서방님을 불러내어  
 서방님 소매 부여잡고 정다이 일러 하는 말이  
 주인마누라 하는 말이 안팎 답살이 있고보면  
 이백오십 량 주려하니 허락하고 있사이다.  
 나는 부엌 에미 되고 서방님은 중노미 되어  
 다섯 해 작정만 하고보면 한 만 금을 못 버릿가.  
 만 량 돈만 벌었으면 그런대로 고향 가서  
 이전만치<sup>152</sup>)는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안 받으리.  
 서방님은 허락하고 지성으로 버사이다.

143) 중노미: 음식점, 여관 같은 데서 허드렛일을 하는 남자.

144) 봉눗방: 여러 나그네가 한데 모여 자는, 주막집의 가장 큰 방.

145) 긍측: 矜側. 불쌍하고 가여움.

146) 청주읍내: '상주읍내'의 오식인 듯.

147) 가화: 家禍. 집안에 일어난 재앙.

148) 공참: 孔慘. 매우 참혹함.

149) 답살이: 더부살이. 머슴살이.

150) 밧사람: 바깥사람.

151) 사전: 새경. 사경. 한 해 동안 일해 준 대가로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

152) 만치: 만큼(사투리).

서방님이 내 말 듣고 들의 낮을 한 데 대고  
 눈물 뿌려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 듣게.  
 임상찰의 따님이요 이상찰의 아들로서  
 돈도 돈도 좋지마는 내사 내사 못하겠네.  
 그런대로 다니면서 빌어먹다가 죽고말지.  
 아무리 신세가 곤궁하나 군노놈의 사환되어  
 한수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한 욕을 어찌 볼고.  
 내 심사도 할 말 없고 자네 심사 어떠할고  
 나도 울며 하는 말이 어찌 생전에 빌어먹소.  
 사무라운<sup>153)</sup> 개가 무서워라 뉘가 밥을 좋아 주나.  
 밥은 빌어 먹으나마 웃은 뉘게 빌어 입소.  
 서방님아 그 말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하게.  
 궁팔십 강태공<sup>154)</sup>도 광장삼천조<sup>155)</sup> 하다가서  
 주문왕<sup>156)</sup>을 만난 후에 달팔십<sup>157)</sup>하여 있고  
 표모기식<sup>158)</sup> 한신이도 도중소년 옥보다가<sup>159)</sup>  
 한고조<sup>160)</sup>를 만난 후에 한중대장<sup>161)</sup> 되었으니

153) 사무라운: 사나운

154) 궁팔십 강태공: 窮八十 姜太公. 팔십 세까지 궁하게 살았던 강태공. 강태공이 팔십 세까지 벼슬하지 않고 있었음을 가리킴. '강태공'은 중국 주(周)나라 초의 정치가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을 가리킴.

155) 광장삼천조: 廣張三千鈞. 삼천일, 즉 십 년 동안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음.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기 전 십 년간 낚싯대를 드리우고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이백의 시 <양보음(梁甫吟)>에 '광장삼천육백조(廣張三千六百鈞)'라는 구절이 있음.

156) 주문왕: 周文王.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은나라 주왕(紂王) 때 서백(西伯)이 되어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펼쳤음. 주왕이 폭정을 일삼았으므로 제후들이 모두 문왕을 군주로 받들었음.

157) 달팔십: 達八十. 부귀한 삶을 의미함. 강태공은 주문왕을 만나 벼슬을 한 뒤로 팔십 년 동안 호사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158) 표모기식: 漂母寄食.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밥을 빌어먹음. 중국의 한신(韓信)이 불우했던 젊은 시절에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음.

159) 도중소년 옥보다가: 道中少年 옥보다가. 한신이 길에서 악소배들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는 치욕을 당한 적이 있음.

160) 한고조: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161) 한중대장: 韓中大將. 한신은 한(漢)나라 건국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韓)의 제후가 되었다.

우리도 이리 해서 벌어가지고 고향 가면  
 이방을 못하며 호장을 못하오 부러울 게 무엇이오.  
 우리 서방님 하신 말씀 나는 하자면 하지마는  
 자네는 여인이라 내 마침 모르겠네.  
 나는 조금도 염려 말고 그리 걱정하사이다.  
 주인 불러 하는 말이 우리 사환 할 것이니  
 이백 량은 우선 주고 쉰 량을랑 갈 제 주오.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심바람<sup>162)</sup>만 잘하고보면  
 칠월별이 잘 된 후에 쉰 량 돈을 더 주오리.  
 행주치마 털트리코 부엌으로 들이 달아  
 사발 대접 동지<sup>163)</sup> 접시 몇 죽<sup>164)</sup> 몇 개 세아려서<sup>165)</sup>  
 날마다 증구하며<sup>166)</sup> 숨씨나게 잘도 한다.  
 우리 서방님 거동 보소 돈 이백 량 받아 놓고  
 일수 월수 체계<sup>167)</sup> 놓아 내 손으로 서기하여  
 낭주에다<sup>168)</sup> 간수하고 숙 자<sup>169)</sup> 수건 골 동이고<sup>170)</sup>  
 마죽 쭈기 소죽 쭈기 마당쓸기 봉당쓸기  
 상 들이기 상 내기와 오면가면 걷어친다.<sup>171)</sup>  
 평생에도 아니 하던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삼년을 나고 보니 만여 금 돈 되었구나.  
 우리 내외 마음 좋아 다섯 해까지 갈 것 없이  
 돈 추심<sup>172)</sup>을 알뜰이 하여 내년에는 돌아가서

162) 심바람: 심부름.

163) 동지: 종지. 간장 등을 담는 작은 그릇.

164) 죽: 옷이나 그릇 따위의 열 벌을 한 단위로 세는 말.

165) 세아려서: 헤아려서.

166) 증구하며: '정리하며' 정도의 뜻인 듯.

167) 체계: 遞計. 장체계.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

168) 낭주에다: 낭중(囊中)에다.

169) 숙 자: 석 자.

170) 골 동이고: 머리를 동여매고.

171) 걷어친다: 걷어치운다.

172) 돈추심: 돈을 찾아내거나 받아가는 것.



병술년<sup>173)</sup> 괴질<sup>174)</sup> 닥쳤구나 안팎 소실<sup>175)</sup> 삼십여 명이  
 함박 모두 병이 들어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  
 삼십 명 소실 다 죽고서 주인 하나 나 하나뿐이라  
 수천 호가 다 죽고서 살아난 이 몇 없다네.  
 이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서방님 신체 틀어잡고 기절하여 옆드러져서  
 아조 죽을 줄 알았더니 게우<sup>176)</sup> 인사를 차리었네.  
 애고 애고 어일거나 가이없고 불쌍하다.  
 서방님아 서방님아 아조 벌떡 일어나게.  
 천유여리 타관객지 다만 내외 왔다가서  
 날만 하나 이 곳 두고 죽단 말이 웬말인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이내 말만 명심하고 삼사년 근사<sup>177)</sup> 헛일일세.  
 귀한 몸이 천인 되어 만여 금 돈을 벌었더니  
 일수 월수 장변<sup>178)</sup> 체계 돈 쓴 사람이 다 죽었네.  
 죽은 낭군이 돈 달라나 죽은 사람이 돈을 주나.  
 돈 낼 놈도 없거니와 돈 받은들 무엇할고.  
 돈은 같이 벌었으나 서방님 없이 쓸 데 없네.  
 애고 애고 서방님아 살뜰이도 불쌍하다.  
 이럴 줄을 짐작하면 천집사<sup>179)</sup>를 아니하지.  
 오년 작정 하올 적에 잘 살자고 한 일이지.

173) 병술년: 丙戌年. 1886년으로 추정됨.

174) 괴질: 怪疾. 콜레라. 콜레라를 ‘호열자’, ‘괴질’, ‘윤질(輪疾)’이라고 하였음. 조선에서는 콜레라가 처음 중국을 통해 유입되어 1821년 창궐하였다. 이때 정부의 통계로는 15만 명이 죽었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후 때때로 발생하였고, 1881년, 1885년, 1886년, 1890년에도 크게 성행하였다. 텐둥어미가 겪은 병술년의 괴질은 1886년 음력 6월 초에서 7월초에 걸쳐 성행한 콜레라라고 추정된다.

175) 소실: 失. 식구.

176) 게우: 覈. 겨우.

177) 근사: 艱. 말은 일을 힘써 함.

178) 장변: 場邊. 장에서 꾸는 돈의 이자. 한 장 도막, 곧 닷새 동안의 이자를 얼마로 셈함.

179) 천집사: 賤執事. 아주 낮고 더러운 일.

울면서로 마달 적에<sup>180)</sup> 무슨 대수로 세워던고.<sup>181)</sup>  
 군노놈의 무지욕설 꿀과 같이 달게 듣고  
 수화 중을<sup>182)</sup> 가리잖코 일호라도 안 어겼네.  
 일정지심<sup>183)</sup> 먹은 마음 한 번 살아 보겠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귀신도 야속하다.  
 전생에 무슨 죄로 이생에 이러한가.  
 금도 돈도 내사 싫어 서방님만 일어나게.  
 아무리 호친통곡한들 사자는 불가부생이라.<sup>184)</sup>  
 아무래도 할 수 없어 그렇저렇 장사하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생한<sup>185)</sup> 목숨 못 죽을레.  
 억지로 못 죽고서 또 다시 빌어먹네.  
 이 집 가고 저 집 가나 임자 없는 사람이라.  
 울산읍내 황도령이 날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찌 저리 설위하오.  
 하도나<sup>186)</sup> 신세 곤궁기로 이내 마음 비참하오.  
 아무리 곤궁한들 날과 같이 곤궁할까.  
 우리 집이 자손 귀해 오대독신<sup>187)</sup> 우리 부친  
 오십이 넘도록 자식 없어 일생한탄 무궁타가<sup>188)</sup>  
 쉰다섯에 날 낳으니 육대독자 나 하나라.  
 장중보옥<sup>189)</sup> 얻음같이 안고 지고 케우티니<sup>190)</sup>  
 세 살 먹어 모친 죽고 네 살 먹어 부친 죽네.

180) 울면서로 마달 적에: 울면서 마다하고 할 적에.

181) 세워던고: 씌웠던가. 우겼던가.

182) 수화 중을: 水火 中을. 물불 속을.

183) 일정지심: 一定之心. 한 번 먹은 마음.

184)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死者는 不可復生이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음.

185) 생한: 生한. 살아있는.

186) 하도나: 몹시.

187) 오대독신: 五代獨身. 오대독자.

188) 무궁타가: 無窮타가. 끝이 없다가.

189) 장중보옥: 掌中寶玉. 손 안의 보물.

190) 케우티니: 키워내니.

강근지족<sup>191</sup>) 본래 없어 외조모 손에 키나더니<sup>192</sup>)  
 열네 살 먹어 외조모 죽고 열다섯에 외조부 죽고  
 외사촌 형제 같이 있어 삼년초토<sup>193</sup>)를 지나더니  
 남의 빛에 못 견뎌서 외사촌 형제 도망하고  
 의탁할 곳이 전혀 없어 남의 집에 머슴 들어  
 십여 년을 고생하니 장가 밑천이 될러니만  
 서울 장사 남는다고 사경돈 말짱 추심하여  
 찻개 열 통 무역하여 대동선<sup>194</sup>)에 부쳐 신고  
 큰 북을 뚱뚱 울리면서 닷 감는 소리 신명난다.  
 도사공<sup>195</sup>)은 키만 들고 입사공<sup>196</sup>)은 춤을 추네.  
 망망대해로 떠나가니 신선놀음 이 아닌가.  
 해남관 머리<sup>197</sup>) 지내다가 바람소리 일어나며  
 왈각 덜컥 파도 일어 천둥 끝에 벼락치듯  
 물결은 출렁 산담<sup>198</sup>)같고 하늘은 캄캄 안 보이네.  
 수천 석 실은 그 큰 배가 회리바람<sup>199</sup>)에 가랑잎 뜨듯  
 뱅뱅 돌며 떠나가니 살 가망이 있을런가.  
 만경창과 큰 바다에 지망없이<sup>200</sup>) 떠나다가  
 한 곳에다 들이 분쳐 수천 석을 실은 배가  
 편편파쇄<sup>201</sup>) 부숴지고 수십 명 적군<sup>202</sup>)들이  
 인홀불견<sup>203</sup>) 못 볼러라 나도 역시 물에 빠져

191) 강근지족: 強近之族. 도와 줄만한 매우 가까운 친척.

192) 키나더니: 키워지더니.

193) 삼년초토: 三年草土. 삼년상을 치름. '초토'는 거적자리와 흙베개를 가리키는바, 거상(居喪)을 뜻하는 말.

194) 대동선: 대동미를 실어 보내는 데에 쓰던 관아의 배.

195) 도사공: 뱃사공의 우두머리.

196) 입사공: 사공의 한 부류인 듯.

197) 해남관(海南館) 머리: 해남관 언저리. '해남관'은 전라남도 해남군을 가리킴.

198) 산담: 산터미.

199)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200) 지망없이: 志望없이. 가망 없이. 희망도 없이.

201) 편편파쇄: 片片破碎. 조각조각 부서짐.

202) 적군: 적꾼. 노를 짓는 선원.

과도머리에 밀려가다 마침 눈을 떠서 보니  
 배쪽 하나 똥똥 떠서 내 앞으로 들어오니  
 두 손으로 더위잡아<sup>204)</sup> 가슴에다가 부쳐노니<sup>205)</sup>  
 물을 무수히 토하면서 정신을 조금 수습하니  
 아직 살긴 살았다마는 아니 죽고 어찌 할고.  
 오르는 절담이<sup>206)</sup> 손으로 헤고 내리는 절담이 가만이 있으니  
 힘은 조금 덜 드나만 몇 달 몇 일 기한 있다.  
 기한 없는 이 바다에 몇 달 몇 일 살 수 있다.  
 밤인지 낮인지 정신없이 기한 없이 떠나간다.  
 풍랑소리 벽력 되고 물사품<sup>207)</sup>이 운애 되네.  
 물귀신의 울음소리 응얼응얼 기막힌다.  
 어느 때나 되었던지 풍랑소리 없어지고  
 만경창과 잠을 자고 까마귀 소리 들리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백사장이 보이는구나.  
 두 발로 박차며 손으로 헤어<sup>208)</sup> 백사장 가에 닿는구나.  
 엉금엉금 기어 나와 정신없이 누웠다가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다시 일어나 살펴보니  
 나무도 풀도 돌도 없고 다만 해당화 붉어 있네.  
 몇 날 몇 일 굶었으니 뱀들 아니 곱플손가.  
 엉금설설 기어가서 해당화 꽃을 따먹으니  
 정신이 점점 돌아나서 또 그 옆을 살펴보니  
 절로 죽은 고기 하나 커다란 게 계<sup>209)</sup> 있구나.  
 불이 있어 구울 수 있나 생으로 실컷 먹고 나니  
 본정신이 돌아와서 눈물 울음도 이제 나네.

203) 인홀불견: 人忽不見.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음.

204) 더위잡아: 더위잡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무엇을) 끌어 잡다.

205) 부쳐노니: 부쳐 놓으니.

206) 절담이: 과도더미.

207) 물사품: 여울.

208) 헤어: 헤쳐.

209) 계: 거기에.

무인절도 백사장에 혼자 앉아 우노라니  
 난데없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지나다가  
 우는 걸 보고 괴이 여겨 배를 대이고 나와서로<sup>210)</sup>  
 날을 흔들며 하는 말이 어쩐<sup>211)</sup> 사람이 혼자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해라 그제야 자세<sup>212)</sup> 돌아보니  
 육칠인이 앉았는데 모두 다 어뵈러라.<sup>213)</sup>  
 그대들은 어디 살며 이 섬중은 어디잇가?  
 이 섬은 제주 한라섬이요 우리는 다 정의<sup>214)</sup>에 있노라.  
 고기 잡으러 지나다가 울음소리 따라왔다.  
 어느 곳의 사람으로 무슨 일로 예<sup>215)</sup> 와 우나?  
 나는 본디 울산 살더니 장사길로 서울 가다가  
 풍파 만나 파선하고 물결에 밀려 내쳐노니<sup>216)</sup>  
 죽었다가 깨난<sup>217)</sup> 사람 어느 곳인줄 아오리까?  
 제주도 우리 조선이라 가는 길을 인도하오.  
 한 사람이 일어서며 손을 들어 가리키되  
 제주읍내는 저리 가고 대정<sup>218)</sup> 정의는 이리 가지.  
 제주읍내로 가오리까 대정 정의로 가오리까?  
 밥과 고기 많이 주며 자세히 일러 하는 말이  
 이곳에서 제주읍 가자하면 사십 리가 넉넉하다.  
 제주 본관 찾아들어 본 사정을 발괄하면<sup>219)</sup>  
 우선 호구<sup>220)</sup> 할 것이오 고향가기 쉬우리라.

210) 배를 대이고 나와서로: 배를 대고 나와서.

211) 어쩐: 어떻게 된.

212) 자세: 자세히.

213) 어뵈러라: 어부일러라.

214) 정의(旌義): 제주도 남제주 지역의 옛 지명.

215) 예: 여기에.

216) 내쳐노니: 내쳐졌으니.

217) 깨난: 깨어난.

218) 대정: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219) 발괄하면: 말하면. '발괄'은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관가에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던 일.

220) 호구: 糊口. 입에 풀칠함.

신신이 당부하고 배를 타고 떠나간다.  
 가리키던 그 곳으로 제주본관 찾아가니  
 본관사또 들으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사  
 돈 오십 량 처급<sup>221)</sup>하고 절령<sup>222)</sup> 한 장 내주시며  
 네 이곳에 있다가서 왕래선이 있거들랑  
 사공 불러 절령 주면 선가<sup>223)</sup> 없이 잘 가거라.  
 그렇저렇 삼삭만에 왕래선이 건너 와서  
 고향이라 돌아오니 돈 두 냥이 남았구나.  
 사기점에 찾아가서 두 냥 어치 사기 지고  
 촌촌가가 도부<sup>224)</sup>하며 밥을량은 빌어먹고  
 삼사삭을 하고나니 돈 열닷 냥 되었건만  
 삼십 넘은 노총각이 장가 밀천 가망 없네.  
 애고답답 내팔자야 언제 벌어 장가 갈고?  
 머슴 살아 사오백 냥 창해일속<sup>225)</sup> 부쳐두고  
 두 냥 밀천 다시 번들 언제 벌어 장가갈까?  
 그런 날도 살았는데 설위마오 우지마오.  
 마누라도 설다하되 내 설움만 못하오리.  
 여보시오 말씀 들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덴<sup>226)</sup>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혼과부<sup>227)</sup>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이 숨숨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냥군은  
 홍문<sup>228)</sup> 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살이

221) 처급: 처결(處決). 결정하여 조치함.

222) 절령: 傳令. 전하여 보내는 훈령이나 전명(傳命).

223) 선가: 船價. 배삯.

224) 도부: 到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것.

225) 창해일속: 滄海一粟. 푸른 바다의 곡식 한 알. 아주 작아 보잘 것 없음. 흔적도 없음.

226) 논지컨덴: 論之컨덴. 논하여 보건대.

227) 혼과부: 혼과부. 혼자된 과부.

228) 홍문: 紅門. '홍살문'의 준말. 충·효·열에 뛰어난 행적을 보인 인물을 표창하기 위해 그 집의 입구에 홍문을 내렸음.

패가망신 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 할까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 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이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sup>229)</sup>  
 나는 사기 광우리<sup>230)</sup> 이고 가가호호이 도부한다.  
 조석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 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 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려<sup>231)</sup> 약시세<sup>232)</sup> 하다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sup>233)</sup> 모아 또 돈 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이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도부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sup>234)</sup>에 털이 없고  
 모가지지<sup>235)</sup>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sup>236)</sup>  
 산 밑의 주막에 주인하고<sup>237)</sup> 굶은 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북아치며 소나기 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터를 빼가지고<sup>238)</sup>  
 동해수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뉘겜고년.<sup>239)</sup>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229) 외고: 외치고.

230) 광우리: 광주리.

231) 병구려: 병구완.

232) 약시세: 약치레.

233) 근사: 근근이.

234) 장바구니: 장단지.

235) 모가지지: 모가지가.

236) 무지러졌네: 문드러졌네.

237) 주인하고: 주인하다. 어떤 집에 묵다.

238) 빼가지고: 빼어가지고. 뽑아서.

239) 뉘겜고년: 뉘겜런고. 누구일런고.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그 주막에나 있었다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이런 일을 아니 볼 걸.  
 고대<sup>240)</sup>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가 도부 광우리 무여박고<sup>241)</sup>  
 해암없이<sup>242)</sup> 앉았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줄너구만<sup>243)</sup> 생한<sup>244)</sup> 목숨이 못 죽을레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랴하니 그 집 덕네가 강권하네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사<sup>245)</sup>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sup>246)</sup> 못하니라.  
 저승을 뉘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훌쩍이며 하는 말이 내 팔자를 세 번 고쳐  
 이런 액운이 또 닥쳐서 신체<sup>247)</sup>도 한 번 못 만지고  
 동해수에 영결종천<sup>248)</sup>하였으니 애고애고 어찌어찌 살아볼고.  
 주인택이 하는 말이 팔자 한 번 또 고치게.  
 세 번 고쳐 곤한 팔자 네 번 고쳐 잘 살런지.  
 세상일은 모르나니 그런대로 사다 보게.  
 다른 말 할 것 없이 저 꽃나무 두고 보지.  
 이삼월의 춘풍 불면 꽃봉오리 고운 빛을  
 별이는<sup>249)</sup> 앵앵 노래하며 나비는 펄펄 춤을 추고

240) 고대: 금방.

241) 무여박고: 땅에 내던지고.

242) 해암없이: 하염없이.

243) 줄너구만: 좋을러구만. 좋았을 것을.

244) 생한: 生한. 살아있는.

245) 죽은들사: 죽은들.

246) 살기만은: 사는 것보다는.

247) 신체: 시체. 경북 방언에서는 ‘시체’를 ‘신체’라 발음하는 경우가 있음.

248) 영결종천: 永訣終天.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249) 별이는: 별은.



유객<sup>250</sup>은 왕왕 노다 가고 산조<sup>251</sup>는 영영<sup>252</sup> 흥락<sup>253</sup>이라.  
 오뉴월 더운 날에 꽃은 지고 잎만 남아  
 녹음이 만지하여<sup>254</sup> 좋은 경이<sup>255</sup> 별로 없다.  
 팔구월에 추풍 불어 잎사귀조차 떨어진다.  
 동지선달 설한풍<sup>256</sup>에 찬 기운을 못 견디다가  
 다시 춘풍 들이붙면 부귀춘화 우후홍을<sup>257</sup>  
 자네 신세 생각하면 설한풍을 만남이라.  
 흥진비래 하온 후에 고진감래 할 것이니  
 팔자 한 번 다시 고쳐 좋은 바람을 기다리게.  
 꽃나무같이 춘풍만나 가지가지 만발할 제  
 향기 나고 빛이 난다 꽃 떨어지자 열매 열어  
 그 열매가 종자되어 천만 년을 전하니  
 귀동자 하나 나아시면<sup>258</sup> 수부귀 다자손<sup>259</sup> 하오리다.  
 여보시오 그 말 마오 이십 삼십에 못 둔 자식  
 사십 오십에 아들 낳아 뒤본단<sup>260</sup> 말 못 들었네.  
 아들의 뒤를 볼 터이면 이십 삼십에 아들 낳아  
 사십 오십에 뒤 보지만 내 팔자는 그 뿐이요.  
 이 사람이 그 말 말고 이 내 말을 자세 듣게.  
 설한풍에도 꽃 피던가 춘풍이 불어야 꽃이 피지.  
 때 아닌 전에<sup>261</sup> 꽃 피던가 때를 만나야 꽃이 피네.  
 꽃 필 때라야 꽃이 피지 꽃 아니 필 때 꽃 피던가.

250) 유객: 遊客. 나그네.

251) 산조: 山鳥. 산새.

252) 영영: 嬰嬰(嬰嬰). 새가 서로 사이좋게 우는 모양.

253) 흥락: 興樂. 흥겨워하며 즐김.

254) 만지하여: 滿枝하여. 가득하여.

255) 경이: 景. 경치가.

256) 설한풍: 雪寒風. 눈바람.

257) 부귀춘화 우후홍을: 富貴春花 雨後紅을. 풍성한 봄꽃이 비 내린 후 붉게 피는 것을.

258) 나아시면: 낳는다면.

259) 수부귀 다자손: 壽富貴 多子孫. 부귀하게 장수하며 자손이 번성함.

260) 뒤본단: 나중에 덕을 본다는.

261) 때 아닌 전에: 때가 되기도 전에.

봄바람만 들이 불면 뉘가 시켜서 꽃 피던가.  
 제가 절로 꽃이 필 때 뉘가 막아서 못 필런가.  
 고운 꽃이 피고 보면 귀한 열매 또 여나니  
 이 뒷집의 조서방이 다만 내외 있다가서  
 먼젓달에 상처하고 지금 혼자 살림하니  
 저 먹기는 태평이나 그도 또한 가련하되  
 자네 팔자 또 고쳐서 내 말대로 사다보게.  
 이왕사를 생각하고 갈까 말까 망상이다<sup>262)</sup>  
 마지못해 허락하니 그 집으로 인도하네.  
 그 집으로 들이달아 우선 영감을 자세 보니  
 나은<sup>263)</sup> 비록 많으나마 기상이 든든 순후하다.<sup>264)</sup>  
 영감 생애<sup>265)</sup> 무엇이오? 내 생애는 옛장사라.  
 마누라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내 팔자가 무상하여 만고풍상 다 겪었소.  
 그날부터 양주 되어 영감 할미 살림한다.  
 나는 집에서 살림하고 영감은 다니며 옛장사라.  
 호두약엿<sup>266)</sup> 잣박산<sup>267)</sup>에 참깨박산 콩박산에  
 산자<sup>268)</sup> 과질<sup>269)</sup> 빈사과<sup>270)</sup>를 갖초갖초 하여주면  
 상자고리에 담아 지고 장마다 다니며 매매한다.

262) 망상이다: 망설이다.

263) 나은: 나이는.

264) 순후하다: 淳厚하다. 양순하고 인정이 두텁다. 돈돈하다.

265) 생애: 생업.

266) 호두약엿: 호두를 넣어 고아 만든 엿.

267) 박산: 유밀과(油蜜果)의 한 가지. 엿을 중탕으로 녹여 꿀을 섞은 뒤 잣을 깨끗이 손질하여 고르게 섞은 다음, 재빨리 모난 그릇에 담아 반대기를 지어 굳혀 썬 것. 요즘은 흔히 잣박산, 콩박산 등을 잣강정, 콩강정 등이라 하여 '박산'을 '강정'이라 부르지만 원래 '박산'과 '강정'은 다른 것이다.

268) 산자: 요즘 흔히 '유과'라 부르는 것이다.

269) 과질: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꿀물과 밀가루를 섞어 반죽한 뒤 과줄판에 박아서 기름에 지져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익힌 것. 강정, 약과, 정과, 다식 등을 통틀어 일컬음.

270) 빈사과: '빙사과'라고도 한다.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시루에 찌낸 다음, 그것을 얇게 밀어 강정바탕을 만들어 잘게 썰고 그것을 잘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 조청을 묻힌 과자.

의성장 안동장 풍산<sup>271</sup>)장과 노루골<sup>272</sup>) 내성<sup>273</sup>)장 풍기장에  
 한 달 육 장<sup>274</sup>) 매장 보니 옛장사 조침지 별호 되네.  
 한 달 두 달 이태<sup>275</sup>) 삼 년 사노라니 어찌하다가 태기 있어  
 열 달 배술러<sup>276</sup>) 해복<sup>277</sup>)하니 참말로 일개 옥동자라.  
 영감도 오십에 첫아들 보고 나도 오십에 첫아이라.  
 영감 할미 마음 좋아 어리장고리장 사랑한다.  
 젊어서 어찌 아니 나고 늙어서 어찌 생겼는고.  
 흥진비래 겪은 나도 고진감래 할라는가.  
 희한하고 이상하다 둥기둥둥 일이로다.  
 둥기둥기 둥기야 아가둥기 둥둥기야.  
 금자동아 옥자동아 섬마둥기 둥둥기야.  
 부자동아 귀자동아 놀아라 둥기 둥둥기야.  
 앉아라 둥기 둥둥기야 서거라 둥기 둥둥기야.  
 궁둥이 툭툭 쳐도보고 입도 쪽쪽 맞춰보고  
 그 자식이 잘도 낫네 인재야 한 번 살아보지.  
 한창 이리 놀리다가 어떤 친구 오더니만  
 수동별신<sup>278</sup>) 큰 별신을 아무 날부터 시작하니  
 밑천이 적거들랑 뒷돈은 내 대춤세.  
 호두약엿 많이 고고 갖은 박산 많이 하계.  
 이번에는 수가 나리 영감님이 옹게 들고  
 찻쌀 사고 기름 사고 호두 사고 추자<sup>279</sup>) 사고

271) 풍산: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72) 노루골: 경상북도 봉화 노루골.

273) 내성: 경북 영주와 문수 근처.

274) 한 달 육 장: 한 달에 장이 열리는 곳 여섯 군데.

275) 이태: 두 해.

276) 배술러: 배불러.

277) 해복: 解腹, 해산.

278) 수동별신: 수동별신(壽洞別神--).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신위를 받드는 국신당제. 이 곳은 안동지방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에 5개 마을 주민들이 진법으로 펼치는 이색적인 곳이라고 한다. 국신당이 경북 안동의 수동촌(지금의 풍산 수곡동)에 있기 때문에 수동별신(壽洞別神)이라 하는 것이다.

279) 추자: 치자(梔子). 치자나무 열매. 음식에 노란 물을 들이는 데 사용함.

참깨 사고 밤도 사고 칠팔십 량 밀천이라.  
 닷동이 들이<sup>280)</sup> 큰 술에다 삼사일을 쫓노라니<sup>281)</sup>  
 한밤중에 바람 이자 굴뚝으로 불이 났네.  
 온 집안에 불붙어서 화광이 충천하니  
 인사불성 정신없어 그 옛물을 다 퍼엿고  
 안방으로 들이달아 아들 안고 나오다가  
 불더미에 엎더져서 구불면서<sup>282)</sup> 나와 보니  
 영감은 간 곳 없고 불만 자꾸 타는구나.  
 이웃 사람 하는 말이 아<sup>283)</sup> 살리러 들어가더니  
 상가까지<sup>284)</sup> 안 나오니 이제 하마 죽었구나.  
 한 마룻대<sup>285)</sup> 떨어지며 기동조차 다 탔구나.  
 일촌 사람 달려들어 부헛치고<sup>286)</sup> 찾아보니  
 포수놈의 불고기 하듯 아주 함박 구웠구나.  
 요런 망할 일 또 있는가 나도 같이 죽으려고  
 불더미로 달려드니 동네 사람이 붙들어서  
 아무리 몸부림하나 아주 죽지도 못하고서  
 온 몸이 콩과질<sup>287)</sup> 되었구나 요런 년의 팔자 있나.  
 깜짝 사이에 영감 죽어 삼혼구백<sup>288)</sup>이 불꽃 되어  
 불티와 같이 동행하여 아주 펄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되서<sup>289)</sup> 죽는다고 소리치네.  
 영아영아 우는 소리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세상사가 귀차내여<sup>290)</sup>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280) 닷동이 들이: 다섯동이 들이.

281) 쫓노라니: 고노라니.

282) 구불면서: 구르면서.

283) 아: 아이.

284) 상가까지: 상기까지. 지금까지.

285) 마룻대: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상량(上樑).

286) 부헛치고: 헛치고.

287) 콩과질: '콩 과줄'인 듯. '과줄'은 강정, 약과, 정과, 다식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288) 삼혼구백: 三魂九魄. 혼백.

289) 되서: 데어서.

텐동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젓 물리며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 아해 젓 먹이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린 아기 젓 먹이게.  
 우는 거동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젓 먹이게.  
 나도 아주 죽을라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거동을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를라네.  
 된다군들<sup>291)</sup> 다 죽는가 불에 텐 이 허다하지.  
 그 어미라야 살려내지 다른 이는 못 살리네.  
 자네 한 번 죽어지면 살기라도 아니 죽나.<sup>292)</sup>  
 자네 죽고 아<sup>293)</sup> 죽으면 조침지는 아주 죽네.  
 살아날 것이 죽고보면 그도 또한 할일인가?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 살리게.  
 어린 것만 살고보면 조침지 사뭇 안 죽었네.  
 그 맥네 말을 옳게 듣고 마지못해 일어 앉아  
 약시세 하며 젓먹이니 삼사 삭 만에 나왔으나  
 살았다고 할 것 없네 갖은 병신이 되었고나.  
 한 짝<sup>294)</sup> 손은 오그라져서 조막손<sup>295)</sup>이 되어있고  
 한 짝 다리 빼드러져서 장채다리<sup>296)</sup> 되었으니  
 성한 이도 어렵거든 갖은 병신 어찌 살고?  
 수족 없는 아들 하나 병신 뒤를 볼 수 있나.  
 된 자식을 젓 물리고 가르더안고<sup>297)</sup> 생각하니  
 지난 일도 기막히고 이 앞일도 가련하다.

290) 귀차내여: 귀찮아서.

291) 된다군들: (불에) 텐다고 한들.

292) 살기라도 아니 죽나: (아이가) 살 것이라 해도 아니 죽겠는가. 살아난다 해도 죽게 되지 않겠는가.

293) 아: 아이.

294) 한 짝: 한쪽.

295) 조막손: 손가락이 오그라져 펴지 못하는 손.

296) 장채다리: '장채'란 긴 작대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장채다리'란 '뺨정다리', 즉 구부러다 폈다 하지 못하고 늘 뺨기만 하고 있는 다리를 말한다.

297) 가르더안고: 길어안고.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높다.  
 어쩐 년의 고생팔자 일평생을 고생이고,  
 이 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의.<sup>298)</sup>  
 자식이나 성했으면 지나 믿고 사지마난  
 나은<sup>299)</sup> 점점 많아가니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텐둥이를 뒤틀어업고<sup>300)</sup> 본 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축대밭이 되었고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 뿐이로다.  
 그늘 맺진<sup>301)</sup> 은행나무 불개청음 대아귀<sup>302)</sup>라.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붙여귀 붙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어찌 알고 올 줄<sup>303)</sup>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림<sup>304)</sup>을 불러내나.  
 반가와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녀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제.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임의 녀이 분명하다 애고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라도 반가워라.  
 근 오십 년 이곳 있어 날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 할고 어이 할고 후회막급 어이할고야.

298) 슬의: 설워라.

299) 나은: 나이는.

300) 뒤틀어업고: 뒤에다 업고.

301) 그늘맺진: 그늘이 진.

302) 불개청음 대아귀: 不改清陰 待我歸. “맑은 나무그늘은 예전처럼 변치 않고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구나”라는 뜻. 당나라 전기(錢起)의 시 <모춘귀고산초당(暮春歸故山草堂)>의 한 구절.

303) 알고 올 줄: 올 줄 알고.

304) 서림: 설움.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셔겨더면<sup>305)</sup>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첸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 번 살아볼라고  
 첫째 낭군은 추천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 내 한 번 못 잘살고<sup>306)</sup> 내 신명이 그만일세.  
 첫째 낭군 죽을 때에 나도 한 가지<sup>307)</sup>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렵잖지.<sup>308)</sup>  
 살아생전에 못 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 걸.  
 남이라도 욕할 게요 친정일가들 반가할까.<sup>309)</sup>  
 잔디밭에 물계 앉아<sup>310)</sup> 한바탕 실컷 우다가니<sup>311)</sup>  
 모르는 안노인<sup>312)</sup> 나오면서 어쩐 사람이 슬이<sup>313)</sup>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내 설음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니다.<sup>314)</sup>  
 무슨 설음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위하나?  
 노인을랑 들어가오 내 설음 알아 쓸 데 없소.  
 일본 인사를<sup>315)</sup>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305) 셔겨더면: 새겼더라면. (내 팔자를 마음에) 새겼었다면.

306) 못 잘살고: 잘 못살고, 잘 살지 못하고.

307) 한가지: 한가지로, 함께.

308) 무렵잖지: 무렵하지 않지. '무렵하다'는 염치가 없음을 느껴 마음에 거북한 것.

309) 반가할까: 반가워할까.

310) 물계 앉아: 물거니 앉아. 떨거니 앉아.

311) 우다가나: 울다가.

312) 안노인: 할머니.

313) 슬이: 슬게.

314) 우나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설운가?  
 간 곳마다 그러릿가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지금에 어찌 사나잇가?  
 그 집이 벌써 결판나고 지금 아무도 없나니라.  
 더군다나 통곡하니 그 집을 어찌 알았던가?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우리 집과 오촌이라.  
 자세히 본들 알 수 있나 아무 형님이 아니신가?  
 달려들어 두 손 잡고 통곡하며 설위하니  
 그 노인도 알지 못해 형님이란 말이 웬 말인고?  
 그러나 저러나 들어가세 손목 잡고 들어가니  
 청삼살이 쾅쾅 짚어 난 모른다고 소리치고  
 큰 대문 안의 계우<sup>316)</sup> 한 쌍 게옥게옥 달라드네.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 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신명타령<sup>317)</sup> 다 못할래.  
 영송이 밤송이 다 썬보고 세상의 별고생 다해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칠래.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그려.  
 옳은 사람 되어 있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청춘과부 갈라하면<sup>318)</sup> 양식 싸고 말릴라네.  
 고생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일래.  
 이팔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315) 일본 인사들: 작은 인사들.

316) 계우: 거위.

317) 신명타령: 신세타령.

318) 갈라하면: (시집을) 가려고 하면.



아무 동네 화령택은 스물 하나에 혼자되어  
 단양으로 갔다더니<sup>319)</sup> 겨우 다섯 달 살다가서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임택은 갓 스물에 청상되어  
 제가 춘광<sup>320)</sup> 못 이겨서 영춘<sup>321)</sup>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앓은뱅이 되었다데.  
 아무 마을의 안동택도 열아홉에 상부<sup>322)</sup>하고  
 제가 공연히 발광 나서 내성으로 간다더니  
 서방놈에게 매를 맞아 골병이 들어서 죽었다데.  
 아무 집의 월동택도 스물 둘에 과부되어  
 제 집 소실을 모함하고 예천으로 가더니만  
 전처 자식을 몹시하다가<sup>323)</sup> 서방에게 쫓겨나고  
 아무 곳에 단양이네 갓 스물에 가장 죽고  
 남의 첩으로 가더니만 큰어미<sup>324)</sup>가 사무라워<sup>325)</sup>  
 삼시 사시 싸우다가 비상을 먹고 죽었다데.  
 이 사람네 이리 된 줄 온 세상이 아는 바라.  
 그 사람네 개가할 제 잘 되자고 갔지마는  
 팔자는 고쳤으나 고생은 못 고치데.  
 고생을 못 고칠 제 그 사람도 후회 나리.  
 후회 난들 어찌할고 죽을 고생 많이 하네.  
 큰 고생을 안할 사람 상부버텨<sup>326)</sup> 아니하지.  
 상부버텨 하는 사람 큰 고생을 하나니라.  
 내 고생을 남 못 주고 남의 고생 안 하나니

319) 갔다더니: (재취를) 갔다더니.

320) 춘광: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321) 영춘: '경상북도 영천'을 가리키는 뜻.

322) 상부: 喪夫.

323) 몹시하다가: 심하게 굴다가.

324) 큰어미: 여기서는 '본처'를 가리킴.

325) 사무라워: 사나워.

326) 버텨: 부터.

제 고생을 제가 하지 내 고생을 뒤를 줄고,  
 역역가지<sup>327)</sup> 생각하되 개가해서 잘 되는 이는  
 몇에 하나 아니 되네 부디 부디 가지말게.  
 개가 가서 고생보다 수절고생 호강이니  
 수절고생 하는 사람 남이라도 귀히 보고  
 개가고생 하는 사람 남이라도 그르다네.  
 고생팔자 고생이리 수지장단<sup>328)</sup> 상관없지.  
 죽을 고생 하는 사람 칠팔십도 살아있고  
 부귀호강 하는 사람 이팔청춘 요사하니  
 고생 사람 덜 사잖코 호강 사람 더 사잖네.  
 고생이라도 한이 있고 호강이라도 한이 있어  
 호강살이 제 팔자요 고생살이 제 팔자라.  
 남의 고생 꺾다 하나 한탄한들 무엇할고.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왔거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존<sup>329)</sup>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썰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자<sup>330)</sup>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327) 역역가지: 歷歷可知. 분명히 알 수 있음.

328) 수지장단: 壽之長短. 오래 살고 못사는 것.

329) 존: 좋은.

330) 맘 심자: 마음 心字.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앓아 올던 청춘과부 황연대각<sup>331</sup>)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애.  
 이 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 춘자로 부쳐두고  
 화용월태<sup>332</sup>) 이 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춘풍<sup>333</sup>) 부쳐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춘간장 쌓인 근심 도화류수<sup>334</sup>)로 씻어볼까.  
 천만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sup>335</sup>)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실실 풀려  
 삼동설한<sup>336</sup>) 쌓인 눈이 봄 춘자 만나 실실 녹네.  
 자네 말은 봄 춘자요 내 생각은 꽃 화자라.  
 봄 춘자 만난 꽃 화자요 꽃 화자 만난 봄 춘자라.  
 열시고나 좋을시고 좋을시고 봄 춘자  
 화전놀음 봄 춘자 봄 춘자 노래 들어보소.  
 가련하다 이팔청춘 내게 당한<sup>337</sup>) 봄 춘자.  
 노년에 갱환고원춘<sup>338</sup>) 덴동어미 봄 춘자.  
 장생화발 만년춘<sup>339</sup>) 우리 부모님 봄 춘자.  
 계지난엽 일가춘<sup>340</sup>) 우리 자손의 봄 춘자.  
 금지옥엽 구중춘<sup>341</sup>) 우리 금주님<sup>342</sup>) 봄 춘자.

331) 황연대각: 晁然大悟. 갑자기 환히 깨달음.

332) 화용월태: 花容月態.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모습.

333) 세우춘풍: 細雨春風. 가랑비와 봄바람.

334) 도화류수: 桃花流水. 복사꽃이 물에 떨어져 흘러감.

335) 구곡간장: 九曲肝腸. 굽이굽이 깊이 든 마음 속.

336) 삼동설한: 三冬雪寒.

337) 당한: 當한. 맞는, 적당함.

338) 노년에 갱환고원춘: 老年에 更還故園春. '늙어서 다시 돌아오니 고향 동산에 봄'이란 뜻.

339) 장생화발 만년춘: 長生華髮 萬年春. '흰 머리 우리 부모님 만년토록 사소서'라는 뜻.

340) 계지난엽 일가춘: 桂枝蘭葉 一家春. 계수나무 가지와 난초 잎, 온 집안의 봄.

- 조운모우 양대춘<sup>343</sup>) 서왕모<sup>344</sup>)의 봄 춘자.  
 팔선대몽 구운춘<sup>345</sup>) 이자선<sup>346</sup>)의 봄 춘자.  
 봉구황곡 각래춘<sup>347</sup>) 정경괘<sup>348</sup>)의 봄 춘자.  
 연작비래 보희춘<sup>349</sup>) 이소화<sup>350</sup>)의 봄 춘자.  
 삼오성희 정재춘<sup>351</sup>) 진채봉<sup>352</sup>)의 봄 춘자.  
 위귀위선 보보춘<sup>353</sup>) 가춘운<sup>354</sup>)의 봄 춘자.  
 금대문장 자유춘<sup>355</sup>) 계섬월<sup>356</sup>)의 봄 춘자.  
 절색천명 하북춘<sup>357</sup>) 적경홍<sup>358</sup>)의 봄 춘자.

- 341) 금지옥엽 구중춘: 金枝玉葉 九重春. 금지옥엽 구중궁궐에 봄.  
 342) 금주남: 임금님.  
 343) 조운모우 양대춘: 朝雲暮雨 陽臺春. 아침엔 구름 저녁엔 비, 양대의 봄. 양대(陽臺)는 주목 왕과 서왕모가 만났던 장소.  
 344) 서왕모: 西王母. 전설상의 선녀.  
 345) 팔선대몽 구운춘: 八仙大夢 九雲春. 팔선녀의 큰 꿈, 구운몽의 봄.  
 346) 이자선: 미상.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 성진을 가리키는 듯.  
 347) 봉구황곡 각래춘: 鳳求凰曲 各來春. <봉구황곡>은 원래 중국의 사마상여가 탁문군의 마음을 끌기 위해 연주한 음악인데,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정경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주하였다. <봉구황곡>이라는 명칭에 '봉황'이 들어있으므로 '각래춘(각기 오는 봄)'이라는 구절을 덧붙인 것이다.  
 348) 정경괘: 鄭瓊貝. <구운몽>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 한 사람.  
 349) 연작비래 보희춘: 燕雀飛來 報喜春. 제비가 날아와 기쁜 봄이 돌아왔음을 알림. 원래 <구운몽>에는 '연작비래보희언(靈鵲飛來報喜言)', 즉 '신령스런 까치가 날아와 기쁜 소식을 알린다'로 되어 있다. 이 시구는 <구운몽>의 여성 인물인 난양공주(蘭陽公主)가 지은 것으로 되어있다.  
 350) 이소화: 李蕭和. <구운몽>의 여성 인물 난양공주의 이름이 이소화이다.  
 351) 삼오성희 정재춘: 三五星稀 正在春. 원래 <구운몽>에는 '삼오성희정재동(三五星稀正在東)', 즉 '동녘에 세다섯 별이 드문드문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운을 맞추기 위해 '동'을 '춘'으로 바꾸었다. 이 시구는 <구운몽>의 여성 인물인 진채봉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352) 진채봉: 秦彩鳳. <구운몽>의 여성 인물의 한 사람. 양소유가 제일 먼저 만나 혼인을 약속했던 인물.  
 353) 위귀위선 보보춘: 爲鬼爲仙 步步春. '귀신인가 선녀인가 걸음걸음 봄이로구나'라는 뜻. <구운몽>의 여성 인물인 가춘운이 정경괘의 지시로 양소유를 놀리기 위해 귀신인체 유혹하는 일화를 가리키고 있음. <구운몽>의 중간 중간마다 이야기 단락의 제목이 붙어있는데, '가춘운위귀위선(賈春雲爲鬼爲仙)'이라는 제목이 있다.  
 354) 가춘운: 賈春雲. <구운몽>의 여성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정경괘의 몸종이었는데 나중에 양소유를 함께 섬기게 된다.  
 355) 금대문장 자유춘: 今代文章 自由春. 원래는 '今代文章自由人'으로 <구운몽>에 나오는 시구다. 지금 봄 춘자 노래를 하고 있으므로 '인'을 '춘'으로 바꾼 것이다. "당대의 문장가는 따로 있으리라"는 뜻.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계섬월을 보고 지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356) 계섬월: 桂蟾月. <구운몽>의 여성 인물 중 한 사람. 문장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

옥문관의 의희춘<sup>359</sup> 심조연<sup>360</sup>의 봄 춘자.  
 청수담의 음곡춘<sup>361</sup> 백능파<sup>362</sup>의 봄 춘자.  
 삼십육궁 도시춘<sup>363</sup>은 제일 좋은 봄 춘자.  
 도중에 송모춘<sup>364</sup>은 마상객<sup>365</sup>의 봄 춘자.  
 춘래에 불사춘<sup>366</sup>은 왕소군<sup>367</sup>의 봄 춘자.  
 송군겸송춘<sup>368</sup>은 이별하는 봄 춘자.  
 낙일만가춘<sup>369</sup>은 천리원객<sup>370</sup> 봄 춘자.  
 등루만리 고원춘<sup>371</sup> 강상객<sup>372</sup>의 봄 춘자.

- 357) 절색천명 하북춘: 絕色擅名 河北春. 이것은 <구운몽>의 여성 인물 적경홍(狄驚鴻)과 관련 된 말이다. 적경홍은 하북 지방에서 절색으로 이름을 날렸다.
- 358) 적경홍: 狄驚鴻. <구운몽>의 여성 인물.
- 359) 옥문관의 의희춘: 玉門關外 依倚春. 옥문관 밖에 아른아른 봄. 이 시구는 <구운몽>의 여성 인물 심요연과 관련된다. 옥문관은 중국 삼숙성에 있으며 서역으로 통하는 관문의 이름이다. 양소유가 그 곳에서 심요연을 만나 밤을 함께 하였다. 이 일을 두고 <구운몽>에서는 “옥문관 밖에 춘광이 가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 360) 심조연: 심요연. <구운몽>의 여성 인물.
- 361) 청수담의 음곡춘: 청수담(淸水潭)의 음곡춘(陰谷春). 청수담 그윽한 골짜기에도 봄이로구나. <구운몽>의 여성 인물 백능파가 살던 곳이 청수담이다. 백능파가 양소유에게 말하길, 자신이 그를 만나게 된 것은 그윽한 골짜기에 따뜻한 봄이 돌아옴과 같다고 하였다.
- 362) 백능파: 白凌波. <구운몽>의 여성 인물. 원래는 동정호 용왕의 딸이었는데 나중에 양소유와 결합하게 됨.
- 363) 삼십육궁 도시춘: 三十六宮 都是春. 온 우주가 모두 봄이로구나. 송나라 소옹(召雍)의 <관물(觀物)>시에 “天根月窟閑來往, 三十六宮都是春”이라는 구절이 있다. 36궁은 본래 『주역』의 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온 우주를 뜻한다.
- 364) 도중에 송모춘: 途中에 送暮春. (여행하는) 길 위에서 늦봄을 보내네. 당나라 송지문(宋之問)의 시 <도중한식(途中寒食)>에 “馬上逢寒食 途中屬暮春”이라는 구절과 관련이 있음.
- 365) 마상객: 馬上客. 말을 탄 나그네.
- 366) 춘래에 불사춘: 春來에 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음. 당나라 동방규(東方虬)의 <소군원(昭君怨)>에 이 구절이 있음.
- 367) 왕소군: 王昭君. 중국 전한의 효원제의 궁녀로 흉노에게 시집간 인물.
- 368) 송군겸송춘: 送君兼送春. 그대를 보내며 봄도 함께 보내네. 당나라 옹유지(雍裕之)의 <춘회송객(春晦送客)>에 이 구절이 있음.
- 369) 낙일만가춘: 落日萬家春. 해가 저무는데 집집마다 봄이로구나. 당나라 이단(李端)의 <송곽양보하제동귀(送郭良甫下第東歸)>에 “落日萬家春, 暮年千里客”이란 구절이 있음.
- 370) 천리원객: 千里遠客. 고향을 천리나 멀리 떠나 있는 나그네.
- 371) 등루만리 고원춘: 登樓萬里 故園春. 누각에 올라보니 만 리 먼 고향에도 봄은 돌아왔으리라. 명나라 대관(戴冠)의 <등장거지서루(登張學之書樓)>에 “三年爲客地, 萬里故園春”이라는 구절이 있음.
- 372) 강상객: 江上客. 강가의 나그네.

- 부지오류춘<sup>373</sup>)은 도연명<sup>374</sup>)의 봄 춘자.  
 황사백초 본무춘<sup>375</sup>)은 관산만리<sup>376</sup>) 봄 춘자.  
 화광은 불감옥양춘<sup>377</sup>) 고국을 생각한 봄 춘자.  
 낭음비과 동정춘<sup>378</sup>) 여동빈<sup>379</sup>)의 봄 춘자.  
 오호편주 만재춘<sup>380</sup>) 월서시<sup>381</sup>)의 봄 춘자.  
 회두일소 육궁춘<sup>382</sup>) 양귀비<sup>383</sup>)의 봄 춘자.  
 용안일선 사해춘<sup>384</sup>) 태평천하 봄 춘자.  
 주사도명 삼십춘<sup>385</sup>) 이청연<sup>386</sup>)의 봄 춘자.

- 373) 부지오류춘: 不知五柳春. 다섯 그루 버드나무에 봄이 온 줄도 모른다. 도연명의 호가 ‘오류 선생’인바, ‘다섯 그루 버드나무’는 도연명의 집을 가리킨다. 이백의 <희증정률양(戲贈鄭深陽)>에 “陶令日日醉, 不知五柳春”이라는 구절이 있음.
- 374) 도연명: 陶淵明. 중국 동진(東晉)의 시인. 이름은 잠(潛), 자호를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하였음.
- 375) 황사백초 본무춘: 黃沙白草 本無春. ‘사막의 백초에는 본디 봄이 없다네’라는 뜻. ‘황사’는 누런 모래, 즉 사막을 가리킨다. ‘백초’는 사막에 자라는 풀. 당나라 마대(馬戴)의 <역수회고(易水懷古)>에 “黃沙白草任風吹”라는 구절이 있음.
- 376) 관산만리: 關山萬里. 만 리 먼 곳의 관산. ‘관산’은 국경 지역의 변방을 가리킨다.
- 377) 화광은 불감옥양춘: 和光不減岳陽春. 봄빛은 악양의 봄 못지않다는 뜻. 원문은 ‘화광은不减沃陽春’으로 되어 있음.
- 378) 낭음비과 동정춘: 朗吟飛過 洞庭春. ‘낭랑히 읊조리며 동정호를 날아서 지나간다’는 뜻. 여동빈(呂洞賓)의 시에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는 구절이 있음.
- 379) 여동빈: 呂洞賓. 중국 당나라 때의 인물.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으나 후에 종남산에서 도를 닦았는데 그 후 자취가 없어졌다. 원나라 명나라 이래 여덟 신선 중 하나로 꼽히며 도가의 정양파(正陽派)에서는 그를 순양조사(純陽祖師)라고 하며, 속칭 여조(呂祖)라 일컬어진다.
- 380) 오호편주 만재춘: 五湖片舟 滿載春. 오호의 조각배에 봄을 가득 실었네. ‘오호’는 중국의 태호(太湖)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태호와 부근의 네 개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월나라 정승 범려(范蠡)가 서시(西施)를 오왕 부차(夫差)에게 바쳐 미인계로 오나라를 멸하고 뒤에 서시를 데리고 오호에 배를 띄워 도망갔다는 일화가 있음.
- 381) 월서시: 越西施. 월나라의 미인 서시. 오나라 임금 부차(夫差)가 사랑하던 여인이었다.
- 382) 회두일소 육궁춘: 回頭一笑 六宮春. 고개를 돌리고 한 번 웃으니 육궁에 봄이로구나. ‘육궁’은 후비(后妃)가 거처하는 궁전이다. 백낙천의 <장한가(長恨歌)>에 “고개를 돌리고 한번 웃으니 온갖 교태 생겨나 육궁의 궁녀들 무색해지네(回頭一笑百媚生, 六宮粉黛無顏色)”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말한 구절이다.
- 383) 양귀비: 楊貴妃. 양태진(楊太眞). 당나라 현종의 비.
- 384) 용안일선 사해춘: 龍顏一鮮 四海春. 용안이 고우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 385) 주사도명 삼십춘: 酒肆逃命 三十春. “술을 마시며 이름을 감추기를 삼십년”이라는 뜻. 당나라 이백의 <답호주가섭사마문백시하인(答湖州加葉司馬問白是何人)>에 “靑蓮居士謫仙人, 酒肆藏名三十春”이란 구절이 있다. 후대 문헌에서는 흔히 ‘藏名’이 ‘逃名’으로 바뀌었다.
- 386) 이청연: 李青蓮. 이백의 호가 청련임.

- 어주축수 애산춘<sup>387</sup>) 불변선원<sup>388</sup>) 봄 춘자.  
 양자강두 양류춘<sup>389</sup>) 문양귀객<sup>390</sup>) 봄 춘자.  
 동원도리 편시춘<sup>391</sup>) 창가소부<sup>392</sup>) 봄 춘자.  
 천하의 태평춘<sup>393</sup>)은 강구연월<sup>394</sup>) 봄 춘자.  
 풍동하화 수전춘<sup>395</sup>)은 고소대 하<sup>396</sup>) 봄 춘자.  
 화기혼여 백화춘<sup>397</sup>) 양과천봉<sup>398</sup>) 봄 춘자.  
 만리강산 무한춘<sup>399</sup>) 유산객<sup>400</sup>)의 봄 춘자.  
 산하산중 홍자춘<sup>401</sup>) 홍정골대<sup>402</sup>) 봄 춘자.  
 일천명월 몽화춘<sup>403</sup>) 골내덕네 봄 춘자.

- 387) 어주축수 애산춘: 漁舟逐水 愛山春. 고깃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봄산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왕유(王維)의 <도원행(桃源行)>의 한 구절.  
 388) 불변선원: 不變仙園. 변함없는 신선세계.  
 389) 양자강두 양류춘: 楊子江頭 楊柳春. “양자강 가의 버들에도 봄이 왔다”는 뜻. 당나라 정곡(鄭谷)의 <회상여우인별(淮上與友人別)>에 이 구절이 있음.  
 390) 문양귀객: 원문은 ‘汶陽귀객’으로 되어 있음. ‘汶陽歸客’. 문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문양은 중국의 지명. 당나라 왕유(王維)의 <한식사상작(寒食汜上作)>에 “廣武城邊逢暮春, 汶陽歸客淚沾巾”이라는 구절이 있음.  
 391) 동원도리 편시춘: 東園桃李 片時春. “불동산의 복사꽃, 오얏꽃도 잠깐 피었다가 곧 지고 만다”는 뜻. 인생의 짧음이 무상함을 비유하고 있음. 당나라 왕발(王勃)의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392) 창가소부: 娼家笑婦. 창가에서 웃음을 파는 여자.  
 393) 천하의 태평춘: 天下的 太平春.  
 394) 강구연월: 康衢煙月. 태평한 시대의 변화한 거리의 평화로운 모습.  
 395) 풍동하화 수전춘: 風動荷花 水殿春. 바람이 연꽃을 움직이니 연못에도 봄이로구나. 원래 이백의 시에는 ‘풍동하화수전향’으로 되어 있으나 봄춘자 노래에 맞춰 ‘향’을 ‘춘’으로 바꾼 것임. 이백의 시 <구호오왕미인반취(口號吳王美人半醉)>에 “풍동하화수전향, 고소대상현오왕(風動荷花水殿香, 姑蘇臺上見吳王)”이라는 구절이 있음.  
 396) 고소대 하: 姑蘇臺 下. ‘고소대’는 중국 강소성 고소산에 있는 이름난 누대.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 임금 부차가 지었다고 함.  
 397) 화기혼여 백화춘: 和氣渾如 百花春. 화한 기운이 가득하니 온갖 꽃이 핀 봄이로구나. 두보의 시 <즉사(卽事)>에 “화기혼여백화향(和氣渾如百花香)”이라는 구절이 있음.  
 398) 양과천봉: ‘양관천봉(陽關千峯)’인 듯. ‘양관’은 중국의 지명.  
 399) 만리강산 무한춘: 萬里江山 無限春. “만리 강산에 봄은 끝이 없구나”라는 뜻.  
 400) 유산객: 遊山客.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  
 401) 산하산중 홍자춘: 山下山中 紅紫春. 산 아래 산 속이 울긋불긋한 봄.  
 402) 홍정골대: 봄춘자 노래의 앞부분에서는 유명한 고사나 인물에 관계되는 구절을 노래했으나 여기서부터는 홍정골대, 골내덕, 새내덕 등 화전놀이에 참여한 이 고을 여인네들의 택호와 관계되는 시구를 열거하고 있다.  
 403) 일천명월 몽화춘: 一川明月 夢下春. 시냇물의 밝은 달, 꿈속의 봄.

- 명사십리 해당춘<sup>404</sup>) 새내덕네 봄 춘자.  
 작작도화 만점춘<sup>405</sup>) 도화동덕 봄 춘자.  
 목동이 요지행화춘<sup>406</sup>) 행정덕네 봄 춘자.  
 홍도화발 가가춘<sup>407</sup>) 도지미덕네 봄 춘자.  
 이화만발 백동춘<sup>408</sup>) 희여골덕네 봄 춘자.  
 수양동구 만사춘<sup>409</sup>) 오양골덕 봄 춘자.  
 연화동구 이월춘<sup>410</sup>) 연동덕네 봄 춘자.  
 홍교우제 갱화춘<sup>411</sup>) 홍다리덕 봄 춘자.  
 용융화기 영가춘<sup>412</sup>) 안동덕네 봄 춘자.  
 제조영영 성곡춘<sup>413</sup>) 소리실덕 봄 춘자.  
 채련가출 옥계춘<sup>414</sup>) 늦점덕네 봄 춘자.  
 제월교편 금성춘<sup>415</sup>) 청다리덕 봄 춘자.  
 강지남의 채련춘<sup>416</sup>) 남동덕네 봄 춘자.  
 영산홍어 화영춘<sup>417</sup>) 영춘덕네 봄 춘자.

- 
- 404) 명사십리 해당춘: 明沙十里 海棠春. “길게 펼쳐진 백사장에 해당화 꽃 핀 봄”이란 뜻.  
 405) 작작도화 만점춘: 灼灼桃花 萬點春. “어어쁜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이란 뜻.  
 406) 목동이 요지행화춘: 牧童 遙指杏花春. 원래는 ‘牧童遙指杏花村’인데 지금 봄춘자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村’을 ‘春’으로 바꾼 것임. “목동이 손을 들어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킨다”는 뜻. 당나라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의 한 구절.  
 407) 홍도화발 가가춘: 紅桃花發 家家春. “집집마다 홍도화 만발한 봄”이라는 뜻.  
 408) 이화만발 백동춘: 梨花滿發 百洞春. 배꽃이 만발하니 온 골짜기에 봄이로구나.  
 409) 수양동구 만사춘: 垂楊洞口 萬絲春. “동구 밖 수양버들 가지가지 늘어진 봄”이란 뜻.  
 410) 연화동구 이월춘: 煙火洞口 二月春. 동네에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는데 이월의 봄이로구나.  
 411) 홍교우제 갱화춘: 虹橋雨霽 更和春. 무지개 뜨고 비 개이니 다시 봄이로구나.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는 ‘홍소우제(虹銷雨霽)’라고 되어있다.  
 412) 용융화기 영가춘: 融融和氣 永嘉春. 화기가 용융하니 영가에 봄이로구나. ‘영가’는 중국 절강성의 고을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동 부근 지방을 ‘영가’라고도 했다.  
 413) 제조영영 성곡춘: 제조영영 성곡춘(諸鳥嚶嚶 聲谷春). “온갖 새들이 골짜기에서 울어대는 봄”이란 뜻.  
 414) 채련가출 옥계춘: 彩蓮佳出 玉溪春. 아름다운 연꽃 피어나는 옥계의 봄.  
 415) 제월교편 금성춘: 霽月橋邊 金星春. 맑은 달 가의 금성이 있는 봄.  
 416) 강지남의 채련춘: 江之南의 採蓮春. 강남에서 연꽃 따는 봄.  
 417) 영산홍어 화영춘: 원문에는 ‘迎山紅 紅於花迎春’인 듯. 영산홍이 영춘화보다 붉다는 뜻. ‘영춘화’를 ‘화영춘’이라고 한 것은 ‘춘’자 운을 맞추기 위한 것임. 영춘화 꽃은 실제로는 노란색임.



만화방창 단산춘<sup>418</sup>) 질막택네 봄 춘자.  
 강천막막 세우춘<sup>419</sup>) 우수골택 봄 춘자.  
 십리장님 화려춘<sup>420</sup>) 단양택네 봄 춘자.  
 말금<sup>421</sup>) 바람 살살 불어 청풍택네 봄 춘자.  
 우로<sup>422</sup>) 덕에 꽃이 핀다 덕고개택네 봄 춘자.  
 바람 끝에 봄이 온다 풍기택네 봄 춘자.  
 비봉산의 봄 춘자 화전놀음 흥이 나네.  
 봄 춘자로 노래하니 좋을시고 봄 춘자.  
 봄 춘자가 못가게로<sup>423</sup>) 실버들로 꼭 잠매게.<sup>424</sup>)  
 춘여과객 지나간다<sup>425</sup>) 앵무새야 만류해라.  
 바람아 부덜마라<sup>426</sup>) 만정도화 떨어진다.  
 어여뵤사 소낭자가 의복단장 윽게 하고  
 방끗 웃고 씩 나서며 좋다좋다 시고 좋다.<sup>427</sup>)  
 잘도 하네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다 했는가 꽃 화자 타령 내가 함세.  
 화수동류<sup>428</sup>) 흐른 물에 만면수심<sup>429</sup>) 세수하고  
 꽃 화자 얼굴 단장하고 반만 웃고 돌아서니  
 해당시례<sup>430</sup>) 웃는 모양 해당화와 한 가지요  
 오리불실<sup>431</sup>) 앵도불은 흥도화가 빛이 곱다.

418) 만화방창 단산춘: 萬花方暢 丹山春. 온갖 꽃 만발한 단산에 봄이로구나.  
 419) 강천막막 세우춘: 江天漠漠 細雨春. 강과 하늘 아득한데 가랑비 내리는 봄이로구나.  
 420) 십리장님 화려춘: 十里長林 華麗春. 십리나 되는 긴 숲에 아름다운 봄.  
 421) 말금: 맑은.  
 422) 우로: 雨露. 비와 이슬.  
 423) 못가게로: 못 가게.  
 424) 잠매게: 잡아 매게.  
 425) 춘여과객 지나간다: 春如過客 지나간다. 봄은 나그네처럼 훌쩍 지나간다.  
 426) 부덜마라: 불지마라.  
 427) 시고 좋다: 열썬고 좋다.  
 428) 화수동류: 花水東流. 꽃이 물에 떨어져 동쪽으로 흘러감.  
 429) 만면수심: 滿面愁心. 얼굴에 가득한 수심.  
 430) 해당시례: 방그레 웃는 모습.  
 431) 오리불실: 도리불실. 도리불수. 비단의 한 종류.

앞으로 보나 뒤으로 보나 온 전신이 꽃 화자라.  
 꽃 화자 같은 이 사람이 꽃 화자타령 하여보세.  
 좋을시고 좋을시고 꽃 화자가 좋을시고.  
 화신풀이 다시 불어 만화방창 꽃 화자라.  
 당상천년<sup>432)</sup> 장생화<sup>433)</sup>는 우리 부모님 꽃 화자요  
 슬하만세<sup>434)</sup> 무궁화는 우리 자손의 꽃 화자요  
 요지연의 벽도화<sup>435)</sup>는 서왕모<sup>436)</sup>의 꽃 화자요  
 천년일개 천수화<sup>437)</sup>는 광한전의 꽃 화자요  
 극락전의 선비화<sup>438)</sup>는 석가여래 꽃 화자요  
 천태산의 노고화<sup>439)</sup>는 마고선녀<sup>440)</sup> 꽃 화자요  
 춘당대의 선리화<sup>441)</sup>는 우리 금주님 꽃 화자요  
 부귀춘화 우후홍<sup>442)</sup>은 우리 집의 꽃 화자요  
 욕망난망 상사화<sup>443)</sup>는 우리 낭군 꽃 화자요  
 천리타향 일수화<sup>444)</sup>는 소인적객<sup>445)</sup> 꽃 화자요

432) 당상천년: 堂上千年.

433) 장생화: 長生花. 약초의 이름으로 줄기가 아홉에, 잎은 셋이며 수심을 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함.

434) 슬하만세: 膝下萬歲. “우리 아들 딸, 오래오래 살아라”라는 뜻.

435) 요지연의 벽도화: 瑤池淵의 碧桃花. ‘요지연’은 중국의 주목왕이 서왕모를 만난 곳. ‘벽도’는仙境(仙境)에 있다는 과실.

436) 서왕모: 西王母. 중국의 전설상의 신녀(神女)의 이름. 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이, 표범의 꼬리에 머리를 형클어뜨렸다고 하며, 불사약을 가진 선녀라고 함.

437) 천년일개 천수화: 千年一開 千壽花. 천 년에 한 번 피는 천수화. 우담바라를 가리키는 듯.

438) 극락전의 선비화: 極樂殿의 禪扉花.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말함. 선비화는 영주 부석사 조사당 앞에 있는 낙엽관목 골담초를 특별히 일컫는 말.

439) 천태산의 노고화: 天台山의 老姑花. ‘천태산’은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으로 천태종의 성지인 산이다. ‘노고화’는 할미꽃이다.

440) 마고선녀: 麻姑仙女. 전설상의 선녀로서 긴 손톱을 가졌다고 한다.

441) 춘당대의 선리화: 春塘臺의 仙李花. ‘춘당대’는 서울 창경궁 안에 있는 누대의 이름. ‘선리화’는 오얏꽃을 가리킨다.

442) 부귀춘화 우후홍: 富貴春花 雨後紅. 부귀함은 비 온 뒤에 봄꽃이 붉게 피는 듯하다. 송나라 소옹(召雍)의 <安樂窩中自貽>에 “災殃秋葉霜前秋, 富貴春花雨後紅”이라는 구절이 있다.

443) 욕망난망 상사화: 欲忘難忘 想思花. ‘욕망난망’은 잊으려고 해도 잊기 어렵다는 뜻. ‘상사화’는 상사초.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 풀.

444) 천리타향 일수화: 千里他鄉 一樹花. 천리 타향에서 보는 한 그루 나무에 핀 꽃. 당나라 사공서(司空曙)의 <玩花與衛象同醉>에 “衰鬢千莖雪, 他鄉一樹花”라는 구절이 있다.

월중월중 단계화(446)는 월궁향아 꽃 화자요  
 황금옥의 금은화(447)는 석가량(448)의 꽃 화자요  
 향일(449)하는 축규화(450)는 등장군(451)의 꽃 화자요  
 귀촉도 귀촉도(452) 두견화는 초희왕(453)의 꽃 화자요  
 명사십리 해당화는 해상선인(454) 꽃 화자요  
 석교다리 봉선화(455)는 이자선(456)의 꽃 화자요  
 송화산의 이백화(457)는 이적선(458)의 꽃 화자요  
 용산낙모 황국화(459)는 도연명의 꽃 화자요  
 백룡퇴의 청총화(460)는 왕소군의 꽃 화자요  
 마외역(461)의 귀비화(462)는 당명왕(463)의 꽃 화자요

- 445) 소인적객: 騷人謫客. '소인'은 시인과 문사. '적객'은 유배객.  
 446) 월중월중 단계화: 月中月中 丹桂花. 달 속에 있는 단계화. 목서(木犀) 중에서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을 금목서, 흰색 꽃이 피는 것을 은목서, 붉은 색 꽃이 피는 것을 단계화라고 한다.  
 447) 황금옥의 금은화: 黃金屋의 金銀花. '금은화'는 인동초의 별명. 인동 덩굴이 봄에 꽃이 피는데, 빛깔이 처음에는 흰색이었다가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금은화라고 함. 그러나 여기서는 금은화가 석가량의 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보리수나무 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 보리수나무 꽃도 금은화처럼 백색으로 피어 나중에 연한 황색으로 바뀌기 때문임.  
 448) 석가량: 석가모니.  
 449) 향일: 向日. 해를 바라 봄.  
 450) 축규화: 蜀葵花. 해바라기.  
 451) 등장군: 鄧將軍. 등우(鄧禹)를 가리킴. 등우는 후한 광무제의 공신 28명 중 제일 공신이다. 왕망의 난 때 황제를 따라 국내통일의 공을 세웠음.  
 452) 귀촉도 귀촉도: 歸蜀道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함.  
 453) 초희왕: 楚懷王. 전국시대 초나라의 왕. 진나라에 억류되었다가 그 곳에서 죽은 비운의 왕.  
 454) 해상선인: 海上仙人. 바닷가의 신선.  
 455) 석교다리 봉선화: 石橋다리의 봉숭아.  
 456) 이자선: 앞서 봄춘자 노래에도 나온 인물임.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이 석교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꽃을 던진 일이 있는데, 혹 이것을 가리키는지 미상.  
 457) 송화산의 이백화: 崇華山의 李白花. '송화산'은 중국의 송산과 화산. '이백화'는 오얏꽃을 가리킴.  
 458) 이적선: 李謫仙. 이백.  
 459) 용산낙모 황국화: 龍山落幕 黃菊花. 용산 황혼녘의 국화. 도연명이 황국을 좋아한 것으로 유명함.  
 460) 백룡퇴의 청총화: 白龍堆의 靑塚花. '백룡퇴'는 중국 신강성에 있는 사막 이름이다. '청총화'는 왕소군의 무덤에 핀 꽃을 가리킨다. 왕소군의 무덤이 있는 곳은 사막 지역이라 백초(白草) 뿐이었는데 그녀의 무덤에만 푸른 풀이 생겼다고 한다.  
 461) 마외역: 馬嵬驛. 중국 섬서성의 지명. 당나라 현종이 안녹산의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다가 군사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죽이고 헤어졌던 곳이다.  
 462) 귀비화: 貴妃花. 양귀비꽃.

만첩산중 철쭉화는 팔십 노승의 꽃 화자요  
 울긋불긋 질여화<sup>464</sup>)는 조카딸네 꽃 화자요  
 동원도리 편시화<sup>465</sup>)는 창가소부 꽃 화자요  
 목동이요지 살구꽃은 차문주가<sup>466</sup>) 꽃 화자요  
 강지남의 홍련화<sup>467</sup>)는 전당지상<sup>468</sup>)의 꽃 화자요  
 화중왕<sup>469</sup>)의 목단화<sup>470</sup>)는 꽃 중에도 어른이요  
 기창지전 옥매화<sup>471</sup>)는 꽃 화자 중의 미인이요  
 화계<sup>472</sup>) 상의 함박꽃은 꽃 화자 중에 흠선하다.<sup>473</sup>)  
 허다 많은 꽃 화자가 좋고 좋은 꽃 화자나  
 화전하는 꽃 화자는 참꽃 화자 제일이라.  
 다른 꽃 화자 그만두고 참꽃 화자 화전하세.  
 쌍저협래 향만구<sup>474</sup>)하니 일연<sup>475</sup>) 꽃 화자 복중전<sup>476</sup>)을  
 향기로운 꽃 화자전을 우리만 먹어 되겠는가.  
 꽃 화자 전을 많이 부쳐 꽃가지 꺾어 많이 싸다가  
 장생화 같은 우리 부모 꽃 화자로 봉친하세.

463) 당명왕: 당명황(唐明皇). '명황'은 당나라 현종의 이름.

464) 질여화: 절레화. 절레꽃의 사투리가 마치 '질녀화'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카딸의 꽃이라고 했다.

465) 동원도리 편시화: 東園桃李片時花. 원래 왕발의 <임고대(臨高臺)>에는 '동원도리편시춘(東園桃李片時春)'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 꽃화자 노래를 하고 있으므로 '춘'을 '화'로 고쳐 노래하고 있다.

466) 차문주가: 借問酒家. "술집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는 뜻. 원래 두목의 시 구절로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에서 따왔다.

467) 강지남의 홍련화: 江之南의 紅蓮花. 강남의 붉은 연꽃.

468) 전당지상: 錢塘之上. 전당 호수가. '전당'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를 가리킴. 서호(西湖)로 유명함.

469) 화중왕: 花中王. 꽃 중의 왕. 모란꽃을 가리키는 말.

470) 목단화: 모란꽃.

471) 기창지전 옥매화: 綺窓之前 玉梅花. 비단으로 꾸민 창 앞에 있는 옥매화.

472) 화계: 華階. 화려한 섬돌.

473) 흠선하다: 欽羨하다. 우러러보고 공경하다.

474) 쌍저협래 향만구: 雙箸挾來香滿口. (화전을) 젓가락으로 가져오니 향이 온 입에 가득하다. 입제 혹은 김삿갓의 시라고 전하는 <전화회(煎花會)>의 한 구절.

475) 일연: 일 년의. 혹은 일 년에 한 번.

476) 복중전: 腹中傳. 배속에 전해진다. 원래 시는 "雙箸挾來香滿口, 一年春色腹中傳"인데, 다소 변형되었음.

꽃다울사 우리 아들 꽃 화자로 먹여보세.  
 꽃과 같은 우리 아기 꽃 화자로 달래보세.  
 꽃화자 타령 잘도 하니 노래 속에 향기난다.  
 나비 펄펄 날아들어 꽃 화자를 찾아오고  
 꽃화자 타령 들으라고 난봉공작이 날아오고  
 벽궁새 꺾꼬리 날아와서 꽃 화자 노래 화답하고  
 꽃바람은 실실 불어 쇠옥성<sup>477)</sup>을 가져가고  
 청산유수 물소리는 꽃노래를 어우르고  
 붉은 나오리<sup>478)</sup> 일어나며 꽃노래를 어리어고<sup>479)</sup>  
 오색운이 일어나며 머리 우에 등등 뜨니  
 천상선관<sup>480)</sup>이 내려와서 꽃노래를 듣는가베.  
 여러 부인이 칭찬하니 꽃노래도 잘도 하네.  
 텐둥어미 \_\_\_\_\_<sup>481)</sup>  
 만사우환<sup>482)</sup> 노래하니 우리 마음 더욱 좋은.  
 화전놀음 이 좌석에 꽃노래가 좋을시고.  
 꽃노래도 하<sup>483)</sup> 하니 우리 다시 할 길 없네.  
 곱은 맘이 없어지고 착한 맘이 돌아오고  
 걱정근심 없어지고 흥채 있게 놀았으니  
 신선놀음 뉘가 봤나 신선놀음 한 듯하네.  
 신선놀음 다를손가 신선놀음 이와 같지.  
 화전흥이 미진하여 해가 하마 석양일제  
 삼월 해가 지다더니<sup>484)</sup> 오늘 해는 저르도다.<sup>485)</sup>  
 하나님이 감동하사 사흘 해만 곁해 주소.

477) 쇠옥성: 碎玉聲. 옥을 부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말함.

478) 나오리: 노을이.

479) 어리어고: 어리고 있고.

480) 천상선관: 天上仙官. 하늘의 신선.

481) 원문에서 이 부분은 판독되지 않음.

482) 만사우환: 萬事憂患. 온갖 우환.

483) 하: 많이.

484) 지다더니: 길다더니.

485) 저르도다: 짧도다.

사흘 해를 겸하여도 하루 해는 맛창이지.<sup>486)</sup>  
해도 해도 길고보면 실컷 놀고 가지마는  
해도 해도 자를시고 이내 그만 해가 가니  
산그늘은 물 건너고 까막까치 자러 드네.  
각귀기가<sup>487)</sup>하리로다 언제 다시 돌아볼고  
꽃 없이는 재미없어 명년 삼월 돌아보세.

---

486) 맛창이지: 마찬가지로.

487) 각귀기가: 各歸其家.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감.